

최 민 자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생태정치학적 측면에서 본 리더십
- 동학사상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오 주 현

생태정치학적 측면에서 본 리더십

- 동학사상을 중심으로 -

최 민 자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오 주 현

인 준 서

오주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및 방향	5
II . 이론적 배경	10
1. 기존 리더십 연구	10
1) 기존 리더십 연구의 분석틀	14
2) 리더십 이론	14
① 리더십의 정의	14
② 단선적 리더십	17
③ 상호관계 리더십	22
④ 변혁적 리더십	24
2. 동학사상	25
1) 동학의 세계관	25
2) 동학사상의 본질	27
III . 생태정치학의 본질	31
1. 문명의 대전환	31

1) 이성의 도구화와 생태위기	31
2) 패러다임의 전환과 후천개벽	34
2. 생태정치학의 본질	38
1) 생태주의와 생태 패러다임	38
2) 생태정치학	44
3. 동학사상과 생태정치학	49
1) 패러다임 전환의 사상	49
2) 이론과 실천의 통합	51

IV. 생태정치학적 측면에서 본 리더십

1. 리더십의 변환	55
2.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의 본질	61
3.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의 특징	69
1) 전일성	69
2) 통합성	75
3) 평등성	79
4) 자각성	85
5) 자율성	88
4. 생태정치학적 리더의 역할	91
1) 리더-조직원의 관계	91
① 존재의식의 자각	91
② 자기 효능감 확산	94

③ 직접참여 유도	96
2) 리더-세계와의 관계	98
① 공동체 의식 확립	98
② 연대의식의 확산 및 공고화	100
③ 에코토피아(Ecotopia) 구현	102
V. 결론	104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개요

본고는 생태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정치의 문제를 다루는 생태정치학의 체계를 수립하고 생태정치학에 입각한 리더의 특징과 의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의 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 패러다임은 이원론에 입각한 기존 세계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던 근대 산업문명의 여러 폐해들을 극복하고 공존의 대안적 사회를 마련하려는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총체적·통합적 패러다임이다.

정치학에서 생태 패러다임의 실현은 19C 후반 이미 동학사상을 통하여 시도된 바 있다. 존재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고 생명을 중히 여기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여 현실의 장에서 그것을 구현하려 한 점은 생태정치학의 핵심인 동시에 동학사상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학사상을 생태정치학이 시도된 예로 보며, 생태정치학과 동학사상을 접목시킨 리더의 상을 조망하고자 한다.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은 전일성, 통합성, 평등성, 자각성, 자율성 등의 다섯 가지 기본 특징을 바탕으로 거시적으로는 우주 전체를 망라하고 미시적으로는 인간 개인의 실존 문제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통합적 시각을 갖출 것을 강조한다. 생태정치학적 리더의 역할은 조직원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로 구분한다. 먼저 조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는 조직원이 스스로의 존재의식을 자각하고 자기 효능감을 확산시킴으로써 조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동체 의식을 확립함으로써 세계가 하나라는 연대의식의 확산 및 공고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에코토피아(Ecotopia)를 구현하는데 조력해야 한다.

ABSTRACT

The Leadership from the viewpoint of eco-politics

Ju-Hyun Oh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paper shall be to construct the image of new leader who is able to meet the needs of new age and the system of eco-politics based on the eco-paradigm. The eco-paradigm is the integrative and comprehensive view of the world which be able to overcome all the problems caused by Cartesian view of the world.

The realization of the paradigm had tried by "*Donghak*"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The eco-paradigm and "*Donghak*" have the same view. The one is the transitional thought which treats the substance problems of all beings and respects for all life. Another is the unification of theory and practice and trying them in the field of reality. Therefore this paper is try to construct the image of new leader by the eco-paradigm and "*Donghak*".

The eco-politician leadership has characteristic of the oneness, unification, self-consciousness and autonomy. According to these, eco-political leader plays an important role between leader and personnel, leader and world. The former role is making spontaneous participation of personnel to one's group by letting them awake their being and diffusing their self-efficacy. The latter role is helping to diffuse and consolidate the union thought

means the world is the one. Ultimately the leader should help to realize the Ecotopia by realizing the very oneness of all life and letting people awake that.

I. 서론

1. 문제제기

21세기로의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현대문명의 혼란은 극에 달하였다. 자본주의적 기술발달은 세계적인 환경파괴를 부추겼고 환경문제는 이미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¹⁾ 또한 사회 전반에서는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 속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인간 실존 자체의 문제와 정신적 공황상태가 만연해 있다. 이와 같이 전 지구적으로 전개되는 각종 위기 현상은 하나의 동일한 위기로서 그 본질은 인식의 위기에 있다.

르네상스 이후 발달하기 시작한 인간의 이성은 17세기 데카르트의 분절적 세계관,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거치면서 점차 근대 과학과 철학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것’인 정신세계와 ‘확장된 것’인 물질세계로의 구분을 통하여 이원론에 입각한 사유체계를 발전시켰다. 이와 같은 기계론적·분절적 세계관은 근대과학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과학과 철학을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고 그 과정에서 이성과 물질세

1) 밀레니엄생태계평가위원회는 세계 95개국 과학자 1360명의 연구 내용에 근거해 작성한 환경 보고서에서 “지난 50년간 지구 생태계에 일어난 변화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속도가 빠르고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기상 변화 ▲새로운 질병 출현 ▲동·식물 멸종 ▲삼림 훼손 ▲수질 오염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증가와 함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생명체의 기반이 되는 생태계의 60%가 오염되거나 과잉 자원 개발됐다. 중국의 황하, 아프리카의 나일강, 북미의 콜로라도강은 지류가 말라붙었고, 참치·황새치·상어 등은 전체의 90%가 감소했다. 동·식물은 10~30%가 멸종 위기에 놓여 있고 1980년 이전에 전 세계 산호의 20%가 이미 사라졌다. 보고서는 “향후 50년간 생태계 파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환경 파괴는 대체로 음식·물·연료·복제 등을 얻으려는 경제활동의 차원에서 일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힌다. 생태계 파괴는 말라리아와 콜레라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신종 질병까지 예고한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3/200503310383.html>

계는 극도로 발전한 반면 정신세계는 소외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신과 물질의 이원화 구조는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으로 작용함으로써 이성과 감정,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 정신과 물질 등 모든 것을 불평등한 대립자적 관계로 파악하였다. 아(我)와 비아(非我)의 구분에 기초한 분절적 세계관 하에서는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 '나'에서 시작되므로 나 아닌 다른 대상은 도구적 수단으로 사용되어도 무방하였다. 현대 문명의 근원적인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정체성 상실과 정신적 공황, 환경과 괴로 인한 생태계의 위기²⁾는 물질과 이성만을 쫓던 인간 이기심의 발로(發露)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현실에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이다.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생태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인식 자체의 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인식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의 가치와 삶의 양식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생태위기의 본질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의 중심에 생명의 개념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고 기존의 이분법론에 기초했던 모든 관계들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패러다임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정치, 사회, 문화, 환경,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분절적인 기존의 세계관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엽적이고 파편적인 세계관에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생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시대의 요구이다.

생태 패러다임은 이성만이 강조되었던 기존의 세계관을 대치할 수 있는 포괄적·통합적 패러다임이다. 궁극적·통합적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뿐 아니라 천

2)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생태학적 위기는 중심과 주변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지구적이다. 요컨대 테일러(Taylor, Peter J.)가 지적한 것처럼 지구화와 더불어 근대성의 재화(goods)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던 낙관적 상황에서 근대성의 해악(bads)이 모든 사람을 위협하는 비관적 상황으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현대국가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강정인,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서울: 아카넷, 2004), pp.495-496.

시(天時)와 인사(人事)의 융합이라는 거시적 틀을 의미하는 생태 패러다임은 동양의 전일적 실재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³⁾ 생태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데카르트적 구분을 극복하며 정신과 물질을 하나로 통합하여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생태 패러다임 안에서 현상과 실제, 주관과 객관 등 기존의 모든 이분법적 갈등구조는 하나로 통합된다.

리더십의 문제도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리더의 방법론적인 자질을 강조하는 지엽적인 이론들이 오랫동안 리더십 이론의 주류로서 맥을 이어나갔다. 리더의 자질론, 특성론 등 개인적 특징을 중시하는 단선적 리더십론은 점점 연구범위와 대상을 넓혀가다가 1990년대를 전후하여 경영분야의 CEO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대부분은 거대한 기업 내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최대의 이윤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정치학 분야의 정권획득, 경영 분야의 최대 이윤창출은 생태 패러다임 이전의 구 패러다임 하에서 리더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 이전까지의 리더십 연구들은 많은 경우 가치를 획일화시키고 임기응변적인 방안에 몰입함으로써 본질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 리더십 연구의 대다수는 훌륭한 리더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기술적·도구적 관점의 방법론적 모색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인간의 심층적 내면의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피상적 수준의 분석에 머무르거나 기술을 소개하는데 치중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리더를 부, 명예, 권력과 동일시 여기는 인식에 있었으며 인식의 문제는 곧 패러다임의 문제로 귀결된다.

분절적 패러다임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이원화하는 리더십, 즉 지배자는 ‘지배하는 존재’, 피지배자는 ‘지배당하는 존재’로 구분한

3) 생태 패러다임의 본질에 대해서는 본 논문 3장 2절을 참조. pp.38-44.

것은 예견된 결과였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리더십 연구의 상당수는 조직 자체를 하나의 커다란 기계로 설정하고 조직의 구성원인 인간을 일종의 기계 부품으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기계론적 세계관이 이제 한계에 달한 낡은 패러다임인 것처럼, 사욕(私慾)을 성취하기 위해 조작과 책동에 의존하는 리더십 또한 더 이상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전 세계가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도의 변화를 겪고 있는 혼란의 시기에 리더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대에 제기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여러 문제들은 특정 분야만을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 차원에서 기업, 정부, NGO, 개개인의 시민 모두의 협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호협조와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리더십 자체가 생태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생태정치학적 리더란 생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기반으로, 조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성을 자각하고 생명공동체로의 연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이끄는 사람이다. 따라서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은 거시적으로는 지구 전체를 망라하고 미시적으로는 인간 개인의 실존문제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시각을 갖출 것을 강조한다. 사실 리더십에 관한 기술적 연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동안 간과되었던 인간관계의 문제, 감정의 문제, 공감의 문제 등 정신적 측면의 연구로 변화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리더십 연구의 시각과 관점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리더십 연구들은 한시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효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통합적 사고를 결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리더십 연구는 어느 한 분야의 개발과 연구로는 충족될 수 없고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의 리더십 연구는 현상문제를 가시화하고 표출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가장 근본적 문제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었으므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이론이나 방법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사고의 기본 틀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없고 문제제기가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면 연구는 주변부를 맴돌게 된다.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서 리더십 연구도 변화해야 함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이다. 리더의 의미와 역할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리더와 조직원과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모든 다양한 영역의 해석과 전망과 논의를 실천의 장에서 통합시킬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정치학이다. 정치학은 본래 관념과 실제, 이론과 현실을 두루 포괄하는 통합적이며 역동적인 학문이고, 생태정치학의 필요성도 이로부터 생겨난다. 현 시대는 생명을 중심가치로 삼는 생명공동체 연대로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 실존의 문제부터 우주 전체의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생태정치학적 리더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및 방향

21C 정보화 혁명을 비롯한 기술문명의 발달은 사회의 변화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는 촉매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 세계의 경제나 정치 판도를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는 반면 리더가 확신을 갖고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는 불투명하

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혼돈과 무질서는 모두 인식의 위기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기계론적·분절적인 세계관 하에서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는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고 그러한 가치관 아래 인간은 한낱 기계의 부속품에 불과했다. 따라서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최고조에 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기술발달과 경제적 풍요로움만으로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음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자아실현을 이루려 노력할 때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하게 된다. 소외된 인간을 두루 아우르면서도 조직의 효율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 충분한 이익을 남기면서도 기능적인 측면에만 치우치지 않는 것, 자기가 속한 일과 공동체에서 스스로의 존재의식을 깨닫고 자아실현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내 가족 내 동료뿐만 아니라 더불어 다함께 잘 사는 것, 인간과 자연 모든 존재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고 바람이요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이 과제를 수행해나갈 새 시대의 선각자로서의 리더는 어떠한 지향성을 갖고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해답으로서 본 논고에서는 생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 패러다임은 이원론에 입각한 기존 세계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던 근대 산업문명의 여러 폐해들을 극복하고 공존의 대안적 사회를 마련하려는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총체적·통합적 패러다임이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단원사회에서 열린사회로,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지 오래이며 전자가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의 특징이라면 후자는 새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된 패러다임의 특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생태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정치의 문제를 다루는 생태정치학의 체계를 수립하고 생태정치에 입

각한 리더의 특징과 의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의 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편적이고 기술 중심적이었던 리더십 이론들이 현장에서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것, 공감, 정서 등 영성의 문제를 포함한 이론들로 변화하는 현상은 이미 생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든 학문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므로 각 분야의 가치체계를 재정비해야 함은 자명한 이치다.

생태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경의심이다. 정치학에서 생태 패러다임의 구현은 서구의 생태주의 논의를 통해서도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그간의 사회 발전이 인간의 편익증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배적인 사상과 제도의 대부분은 이를 표방하는 인간 중심주의 성향을 띠어 왔다. 생태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배적 행위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사회 체제 전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

동양에서는 서구의 패러다임 변환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동양사상의 바탕을 이루는 전일적 실재관은 이미 생태 패러다임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19C 후반 동학사상을 통하여 시도된 바 있다. 동학은 내유신령(內有神靈) 외유기화(外有氣化) 각지불이(各知不移)의 핵심사상을 기반으로 우주만물을 궁극적 실재의 다양한 현현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동양의 전일적 실재관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생명의 유기성과 상호관통이라는 측면에서 만물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동학에서 주장하는 평등은 이론적 논의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반상(班常)의 구분이 엄격했던 유교의 지배구조 속에서 19C 말 실질적인 민중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로써 동학은 생활의 가르침이었던 동시에 그 혁명성, 평등성, 변혁성 자체는 이미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정치·경제·사회,

국제정세에 대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내놓은 동학의 정치·사회적 지향성은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匡濟蒼生), 포덕천하(布德天下)라는 말 속에 잘 나타난다. 안으로는 깨달음을 통한 인격완성을 지향하고 밖으로는 사회 변혁과 혁명을 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동학의 평등사상은 정치적 객체이자 피지배 계층이었던 농민들을 정치적 주체로 성숙시켜 농민들을 19세기 말 사회 변혁의 선두에 설 수 있게 해준 사상적 기초였다.

존재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고 생명을 중히 여기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여 현실의 장에서 그것을 구현하려 한 점은 생태정치학의 핵심인 동시에 동학사상의 목적이다. 생명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또한 서구의 생태주의 담론에서도 부분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생태정치학과 동학사상 및 서구의 생태주의 논의를 접목시킨 리더의 상을 조망하고자 한다.

제2장은 기존 리더십 연구의 분석틀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주도적이었던 기계론적·분절적 세계관이 리더십 이론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설명한다. 이론적 배경의 구체적 내용은 기존 리더십 이론들과 동학사상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리더십 이론들은 연구대상과 범위에 따라 단선적 리더십, 상호관계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으로 분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설명한다. 동학사상은 동학의 세계관과 사상의 본질을 설명함으로써 핵심적인 사항들을 짚어나간다.

제3장은 생태정치학의 본질을 다루는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생태정치학이 필요한 필연적 이유를 문명의 대전환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찾고 있으며 이성의 도구화와 생태의 위기, 패러다임의 전환과 후천개벽 사상을 통하여 문명 전환의 의미를 고찰한다. 또한 생태 패러다임이란 무엇이며, 생태 패러다임 안에서 생태정치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통하여 생태정치학의 본질에 대해 논한다. 생태정치학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예로 동학사상을 들 수 있다. 그것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측면과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이다.

제4장은 본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생태정치학적 측면에서 본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한다.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제1절에서는 리더십의 변환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론과 현실의 양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며, 제2절에서는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3절은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의 구체적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크게 전일성, 통합성, 평등성, 자각성, 자율성의 다섯 가지 특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4절에서는 생태정치학적 리더가 해야 할 역할을 리더와 조직원의 관계, 리더와 세계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우선 리더와 조직 구성원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는 구성원이 존재의식을 자각하고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확산시킴으로써 자발적으로 직접참여를 유도할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리더와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동체의식 확립을 통하여 모든 존재의 연대의식을 확산시키고 공고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에코토피아(Ecotopia)를 구현하는데 조력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제5장 결론 부분은 본 논문의 핵심사항들을 요약하며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과 생태정치학의 비전에 대해 설명한다. 리더는 끊임없는 학습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인재 양성은 리더십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리더의 기술만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을 통하여 정신적·영적 능력 또한 키워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한 학문은 그 앎(知)이 행함(行)으로 연결될 때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모든 다양한 영역의 해석과 전망과 논의를 실천의 장에서 통합시킬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정치학이다. 생태정치학은 학문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접근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다각적인 분석과 관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의 해석과 전망을 정치학적 측면에서 통합시킬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유로 생태정치학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매우 유망하고 매력적인 학문일 수 있다.

Ⅱ . 이론적 배경

1. 기존 리더십 연구

1) 기존 리더십 연구의 분석틀

리더십 이론을 유형화하고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특성론, 행태론, 상황론, 교환관계이론, 카리스마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등으로 분류하고 학자에 따라 리더십 전개과정에서 부하의 인간적 배려와 과업성취 지향에 대한 리더의 태도에 따라 전통적 이론, 과도기적 이론, 근대적 이론으로 구분하기도 한다.⁴⁾ 본 논문에서는 1990년 이후 리더십 연구에 두 가지의 중대한 변환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리더와 집단구성원을 주체와 객체의 기계론적 관점으로 보던 시각에서 인간적인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리더의 문제를 기술적 방식으로 접근하던 것에서 개개인의 정신적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 분석틀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본다.

1980년대 바스(Bass)의 변혁적 리더십이 등장한 이래로 1990년에 들어서는 윤리적 리더십, 감성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 리더십에 있어 정신적인 문제들, 인간 근원의 문제들이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1990년대 이전까지의 리더십 연구에서 인간본원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연구가 인간사이의 상호관계 문제로까지 발전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접근법은 기업의 능률향상과 조직의 이익창출 위한 ‘직원 다루기’에

4) 김석희, “리더십 이론의 통합적 접근: 상황부응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産業經營研究』 Vol.1, No.7, 1999, p.8.

머무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리더십 연구에서 조직의 구성원은 하나의 인간이 라기보다 마치 기계에 속한 부품처럼 ‘다루어져야 할’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나마도 위인론과 카리스마 리더십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영학, 심리학 쪽에서 접근한 연구이고 정치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리더십의 현대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자본주의의 논리가 우선시되고 대부분의 가치척도가 금전적인 문제와 연결됐던 시대의 조류와 함께 리더십 연구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이익을 거둬들이기 위한 논의에 집중되면서 기업경영을 위한 연구, CEO 만들기 에 집중되었다. 진정한 CEO가 되기 위해서는 능수능란한 조직관리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직 관리라는 차원에서 심리학 분야의 리더십 연구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정치학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리더의 역할과 위치, 자질에 대한 논의가 많아야 할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고대 정치 사상가들의 위인론 이후, 현대 들어서 변화하는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 정권에 대한 한시적인 리더십 연구나 현상에 관한 분석은 많았지만 변화하는 리더십의 근저에 있는 사상과 궁극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직접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많지 않았던 것이다.

기존 리더십 연구의 흐름에서 중요한 특징을 지적할 때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세 가지 접근법은 특성론적 연구(traits approach), 상황론적 연구(situational approach), 추종자 지향이론(follower-oriented approach)이다.⁵⁾ 이를 권력·영향력 접근법, 특성적 접근법, 행태적 접근법, 상황적 접근법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⁶⁾ 바스(Bass)와 같은 학자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①위인론(great man theories) ②특성론(trait theories) ③환경론, 상황론(environmental or situational theories) ④개인-상황론, 상호작용론(personal-situational or interaction theories) ⑤정신분석론(psychanalytic theories) ⑥상호작용-기대론

5) 위의 글, p.7.

6) Gary Yukl 지음, 이상욱 옮김, 『현대조직의 리더십 이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p.7.

(interaction-expectation theories) ⑦인간성론(humanistic theories) ⑧교환론(exchange theories) ⑨행태론(behavioral theories) ⑩지각과 인식론(perceptual and cognitive theories) 등으로 구분한다.⁷⁾ 바스의 분류를 다시 두 가지의 큰 특징으로 구분한다면 ①위인론부터 ⑤정신분석론 까지를 하나로 ⑥상호작용-기대론부터 ⑩지각과 인식론 까지를 다른 하나로 볼 수 있다. 전자는 리더 1인을 중심으로 인간 개인의 타고난 특성이나 자질을 중시하고, 거기서 조금 발전된 형태로 리더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상황을 리더십 발현의 중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연구범위가 리더와 조직원, 인간들의 상호관계로 확대되면서 조직원들 사이의 관계 및 그들의 상호작용과 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단선적인 사고에서 인간사이의 네트워크에 관심을 기울이는 통합적인 사고로의 전환은 기존 리더십 연구에서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리더십 특성들은 대체로 전제형의 리더십, 민주형의 참가적 리더십 및 방임형의 리더십과 같은 보편적 리더십 유형을 나타낸다고 한다. 전제형의 경우 의사결정권이 주로 리더 자신에게 있고, 민주형 리더십은 집단에 의사결정권이 주어지며, 방임형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의사결정권이 부여된다.⁸⁾ 이러한 분석의 틀은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의 문제를 논하고 있지만 그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결국 리더이다. 의사 결정권자가 리더라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리더의 의지에 따라 의사결정권을 조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공유하거나 홀로 독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리더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권을 배분함으로써 의사 결정의 권한을 리더 일인에게로 축소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리더십의 기능에 대한 분석도 마찬가지이다. 바나드(Chester I. Barnard)는 리

7) 김순규 외, 『정치학의 理解』 (서울: 博英社, 2004), pp.501-502.

8) Lippitt, G., "What do we Know about Leadership,"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Journal*, Dec. 1955 참조.

더십의 기능을 ① 목표의 결정(determination of objectives) ② 수단의 조종(manipulation of means) ③ 행동의 수단(instrumentality of action) ④ 협동적 행동의 자극(stimulation of coordinated action) 이라 했으며 카츠와 칸(Daniel Katz and Robert I. Kahn)은 ① 구조변화의 도입(정책형성) ② 구조의 보완(기존 공식구조의 불완전성 분리) ③ 구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작동(행정) 이라고 보았다.⁹⁾ 그밖에도 리더십의 기능을 ① 기획 ② 주도 ③ 통제 ④ 지원 ⑤ 정보 제공 ⑥ 평가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¹⁰⁾ 이러한 기능분류의 기본관점은 집단구성원 각자의 내면·자원성 등에 대한 인식은 배제하는 한편, 조직원을 단지 이끌어가야 할 대상 즉 일종의 객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리더십 이론의 분석틀은 복잡한 인간관계의 망을 단편적·부분적인 틀로 단순하게 축소시키고 일반화시키는 역할, 즉 현실을 실험실 상황에 끼워 넣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비단 리더십 연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의 상황을 간단히 축소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원주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 환원주의의 흐름은 기계론적이고 분절적인 데카르트-뉴턴의 세계관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리더십 연구의 기본 대상으로 개개인의 인간에 대한 고려가 전제된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기능단위가 중심이 되었으며 인간에 대한 관심은 리더 1인 연구에 한정되었다는 측면도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그 결과 인간을 최대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고 물질적 이익이 부각되다보니 정신적 측면은 도외시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의 범위가 리더, 리더와 조직, 리더와 조직원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기 시작한 연후에야 간신히 조직과 조직원의 관계로 범위가 확장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계가 하나로 더불어 살

9) Daniel Katz and Robert I. Kahn,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 (New York: Wiley, 1966), p.536.

10) John Adair, *The Skills of Leadership* (New York: Nichols Publishing Company, 1984), p.13.

아간다는 거시적 틀 안에서 다양한 관계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다층적 관계의 망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리더십 이론

① 리더십의 정의

정치학이 지도자에 대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리더십 (leadership) 개념은 19세기 중반 이전에 나타났다.¹¹⁾ 리더십에 대하여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일하는 것을 원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보았으며, 트루먼(Harry Truman)은 “지도자는 타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들고, 또한 좋아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았다.¹²⁾

리더십 개념 정의가 그것을 시도한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구심력을 가진 패러다임 없이 다양한 정의들만 존재하는 가운데 내용은 모호해졌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여타의 사회적 차원들과 중첩된 의미로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정의들 사이에 개략적 분류를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유사성은 있다.¹³⁾

바스(Bass)는 리더십의 개념 정의를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집단과정의 초점으로서의 리더십(leadership as a focus of group processes), 리더의 인격과 그 효과성으로서의 리더십(leadership as a personality and its

11) Bernard M. Bass, *Stogdill's Handbook of Leadership: A Survey of Theory and Research*, revised and expanded ed. (New York: The Free Press, 1981), p.7.

12) Glenn D. Paige, *The Scientific Study of Political Leadership* (New York: The Free Press, 1977), pp.65-66.

13) Bernard M. Bass, *Bass & Stogdill's Handbook of Leadership: Theory, Research & Managerial Implic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90), p.11.

effects), 추종을 조장하는 기술로서의 리더십(leadership as the art of inducing compliance), 행동 또는 행위로서의 리더십(leadership as an act or behavior), 설득으로서의 리더십(leadership as a form of persuasion), 권력관계로서의 리더십(leadership as a power relation), 목표달성 도구로서의 리더십(leadership as an instrument of goal achievement), 상호 관계촉진 효과로서의 리더십(leadership as an emerging effect of interaction), 차별화된 역할로서의 리더십(leadership as a differentiated role), 구조생성으로서의 리더십(leadership as the initiation of structure),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으로서의 리더십(leadership as a combination of elements) 등이 그것이다.¹⁴⁾

더욱 구체적으로 리더십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바스는 “상황이나 집단 구성원들의 인식과 기대를 구조화, 또는 재구조화하기 위하여 구성원들 간에 교류하는 과정”이라 하였고, 허쉬 &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는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유클(Yulk)은 “집단이나 조직의 한 구성원이 사건의 해석, 목표나 전략의 선택, 작업 활동의 조직화, 목표 성취를 위한 구성원의 동기 부여, 협력적 관계의 유지, 구성원들의 기술과 자신감의 계발, 외부인의 지지와 협력의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 하였다. 또 나누스(Nanus)는 “꿈(비전)의 제시를 통하여 추종자들의 자발적 몰입을 유인하고 그들에게 활력을 줌으로써 조직을 혁신하여 보다 큰 잠재력을 갖는 새로운 조직형태로 변형시키는 과정”이라고 리더십을 정의하였다.

로스트(Joseph C. Rost)는 1980년대 리더십에 대한 정의 110가지를 종합하여 리더십을 ① 지도자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do the leader's wishes) ② 집단이나 조직의 목적 달성(achieving group or organizational goals) ③ 경영(management) ④ 영향력(influence) ⑤ 특성(traits) ⑥ 변형(transformation) 등으로 이해하였다.¹⁵⁾ 포시스(Forsyth)의 리더십 정의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14) *Ibid.*, pp.11-18.

인 것으로서 리더십이란 “집단과 각 구성원들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들을 동기화시키는 상호적(reciprocal)·교환적(transactional) 및 변환적(transformational) 과정”이다.¹⁶⁾

국내 학자들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보면 리더십이란 “전 방향의 조직원들이 이슈를 통한 공동의 성과창출 노력에 따라 자발적, 지속적으로 몰입하도록 이끌어 가는 과정”¹⁷⁾이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¹⁸⁾이라는 정의도 있고, 또한 “조직 및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조직과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과 행동”¹⁹⁾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리더십을 개념화하는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현상에 중심이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리더십은 집단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리더십은 리더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리더십이 단선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리더십 정의는 한 사람의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다. “리더십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²⁰⁾이다.

리더십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리더십 이론들은 연구대상과 범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리더십 이론들을 크게 세 가

15) Joseph C. Rost, *Leadership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Praeger, 1991), pp.70-88.

16) 신응섭 외,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0), pp.16-77.

17) 백기복, 『이슈리더십』 (서울: 창민사, 2000), p.59.

18) 이강욱·송경용·노연필, 『21C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무역경영사, 2001), p.9.

19) 이준형, 『리더십 먼저 민주주의 나중』 (서울: 인간사랑, 2004), pp.47-75.

20) W. H. Drath, & C. J. Palus, *Making Common Sense: Leadership as Meaning-making in a Community of Practice* (Greensboro, NC: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 1994), p.4.

지로 분류하여 단선적 리더십, 상호관계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한다. 단선적 리더십은 연구대상이 두 가지로 압축되고 범위가 리더, 구성원, 환경으로 제한되는 이론들을 의미한다. 특성론, 행태론 및 상황론이 이에 해당되는데 그 공통점은 리더와 조직원, 리더와 환경, 리더 자신 등 두 개의 연구대상을 설정하여 단선적 영향력에 대해 관찰하였다는 점이다. 단선적이라는 의미는 리더와 기타 요소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조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상황이 리더에게 미치는 영향과 같이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상호관계 리더십은 다양한 범위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연구대상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리더와 기타 요소들의 상호관계와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우발이론이 이에 속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연구대상과 범위가 상호관계 리더십과 유사하지만 후자가 기계론적 분류에 입각하였다면 전자는 도덕적 가치를 리더십 안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뚜렷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따로 분류하였다.

② 단선적 리더십

i) 특성론

특성론은 1920-1940년대에 발달한 리더십 이론으로서 20세기 전 기간에 걸쳐 연구되어 왔고 스토크딜(Stogdill)에 의하여 특성연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연구가 완성되었다. 현대 특성연구의 시기는 스토크딜이 중심적 역할을 한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1948년 이전까지의 전기와 그 이후의 후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연구에서 스토크딜은 1904년부터 1947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124건의 특성연구를 종합 분석하였고, 전기의 특성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통하는 리더의 보편적 공통점을 추구하는 보편적 특성이론이었다. 두 번째 연구는 1948년부터 1970년 사이에 완성된 163건의 특성연구를 분석한 것으로서 1950년 이후부터의 후기는

상황부합이론 및 상황론이 발달하였다.

초기의 특성론은 보편적 접근법을 도입한 것으로서 리더에게는 상황의 특수성에 관계없이 항상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특성적 관점은 리더십을 ‘상이한 사람들이 상이한 정도로 소유하고 있는 특성이나 속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천부적 자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리더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히 신체적 특징, 성격특성, 정신적 능력 등을 중요하게 여겼다.²¹⁾

1930년대부터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편의 특성 연구들이 리더의 자질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리더십 성공을 보장해줄 수 있는 특성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특성론은 아무나 리더가 될 수 없고 상당수의 특성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리더는 타고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천부적 자질을 갖고 있는 리더를 보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카리스마 리더십도 특성론의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본래 카리스마는 “하늘이 부여한 재능”이라는 의미를 가진 희랍어인데 막스 베버(Max Weber)는 전통이나 공식적인 권위가 아니라 리더가 비범한 자질을 부여받았다는 부하의 인식에 바탕을 둔 영향력 형태를 기술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²²⁾ 카리스마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특성들이 제시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성들 대부분이 구체적인 실증적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카리스마 리더십은 리더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단선적 리더십이기는 하지만

21) ① 신체적 특성: 연령, 신장, 체중, 외모 등 ② 성격 특성: 자존심, 지배성, 정서 안정성 ③ 정신적 능력: 일반지능, 언어 유창성, 창조성, 사회적 통찰력, 이준형, 앞의 책, p.96.

22) 이상욱 옮김, 앞의 책, p.294.

초기의 특성론적 연구에 비하여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심화된 발전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카리스마 리더십의 긍정적 결과는 권한을 상당히 위임하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조직원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며 성취 지향적 문화, 참여와 가치 지향적인 역동적 조직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리스마의 어두운 면이라 일컬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 카리스마는 특히 개인적이 권력지향을 통하여 조직의 비전이나 이상보다는 리더 자신에게 헌신할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또한 일단 권력을 획득한 후에는 이데올로기를 무시하거나 임의적으로 변경시켜 리더 개인의 목표를 위해 봉사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리더의 일부 특성들이 유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나타나면서 특성론이 다시 중요시되기 시작하였다. 또 리더의 특성이 주변사람들의 리더인식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론 차원의 새로운 해석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²³⁾ 특성연구가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리더십특성을 도출해내지는 못하지만,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 개괄적 정보는 모든 유형의 조직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특성이론만으로 리더를 육성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통합적인 패러다임 하에서 그 특성을 어떻게 비전과 목표에 맞게 활용할지에 초점을 두는 일이다.

ii) 행태론 및 상황론

1940년대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리더십의 행동론은 오하이오주립대(OSU) 연구, 미시간대 연구, 블레이크와 마우튼(Blake & Mouton)의 관리격자이론, 탄넨바움과 슈미트(Tannenbaum & Schmidt)의 참여론, 미수미(Misumi)의 PM이

23) Peter G. Northouse 지음, 김남현·김정원 옮김, 『리더십: 이론·응용·비판·측정·사례』 (서울: 경문사, 2002), p.165.

론 등을 포함한다. 리더십을 행위나 스타일로 보기 시작한 행위론은 리더의 성격과 특성을 강조했던 특성론과 달리 리더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리더가 보이는 행위는 사람이나 관계에 기초를 두는가 아니면 과업과 직무수행에 중점을 두는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오하이오주립대 연구는 리더십 유형을 크게 구조주도와 배려주도로 구분하고 있다. 구조주도 행동은 일종의 과업행동이고 배려주도 행동은 관계성 행동이다. 전자는 말 그대로 업무에 관련되는 내용 즉 임무를 할당하고 작업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지시하며 통제하는 등의 모든 업무활동을 포함한다. 이와 달리 배려주도 행동은 리더와 조직원간의 인간관계를 중시하여 하급자의 처지를 이해하는 따뜻한 감정이나 존경, 신뢰구축 등을 말한다. 이 연구는 구조주도와 배려가 서로 독립적이기는 하지만 리더는 두 행동을 동시에 보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²⁴⁾

미시간대 연구는 리더십 유형을 종업원중심과 생산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종업원 중심은 오하이오주립대 연구의 배려행동과 유사한 것으로 종업원들에 대해 좋은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리더들의 행동을 말한다. 이들은 특히 인간적 관심, 개성존중, 개인적 욕구수렴에 중점을 둔다. 생산중심은 오하이오주립대 연구의 구조주도 행동과 일치한다. 즉 직무의 기술적 측면과 생산측면을 강조하는 리더십행동으로서 종업원들을 과업완성 수단으로 여긴다. 이 연구의 특징은 종업원 중심행위와 생산중심의 행위가 단일연속체상의 양극단에 있다고 보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리더는 한 시점에서 한 가지 행위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에 중점을 두는 리더는 종업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덜하고 반대로 종업원 지향적인 리더는 과업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의미이다.²⁵⁾

블레이크와 마우튼은 Y축을 ‘인간에 대한 관심’, X축을 ‘결과에 대한 관심’으

24) 이상욱 옮김, 앞의 책, pp.64-67.

25) 위의 책, pp.68-70.

로 설정하고 각 축을 9단계로 나누어 중앙과 네 모서리의 좌표를 중심으로 팀 중심스타일, 권위순응형, 컨트리클럽형, 중간적 스타일, 결핍형의 5가지 유형을 도출한다. 팀중심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공유하며 직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상호의존적으로 과업을 성취해나가도록 하는 유형이다. 권위순응형은 종업원들이 과업완수와 직무상 요구에 따를 것을 심하게 강조하며 작업과정에 인간적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리더는 통제적이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강하게 몰아붙이며 고압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와 반대로 컨트리클럽형은 과업완수에 대한 관심은 낮고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리더십 유형으로 만족스런 관계유지를 목표로 하여 하급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조직분위기를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조성하려 노력한다. 중간형은 일종의 절충형 리더로서 하급자의 사기와 직무수행 간 균형유지를 중요시하는 리더이다. 따라서 이들은 갈등을 피하고 적당한 정도의 생산 활동과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결핍형 리더는 과업수행이나 대인관계 어느 쪽에도 거의 힘을 쓰지 않으며 구성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만을 기울이는 리더이다. 이들은 리더 시늉은 하지만 업무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소극적이며 늘 한 걸음 물러나있는 방관자의 태도를 취한다.²⁶⁾

탄넨바움과 슈미트(Tannenbaum & Schmidt)의 연구는 권위적 유형과 민주적 유형이라는 양극단을 설정한 후 그 사이에 7개의 리더 유형을 세분화 한 연구이다. 권위적 리더는 주로 과업중심 유형으로서 리더가 직접 업무를 결정하여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민주적 리더는 관계중심 유형으로서 하급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리더십 행위론은 자신들이 도출한 리더의 유형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조직이 점차

26) 신응섭 외, 『리더십』 (서울: 학지사, 1996), pp.393-399.

로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대의 상황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리더유형을 제안한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다만 다양한 유형을 각 조직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도구적으로 활용해야지 유형 자체를 목적으로 두거나 한 가지 유형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과오는 피해야 한다. 행위론에서 제시된 연구들은 통합적이고 명확한 패러다임 하에서 하부적 특성단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행위론에서 제시된 연구들이 다른 연구들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단절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며 폐쇄적이라는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1950-60년대의 많은 연구들이 행위론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후반에는 리더십 상황이론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③ 상호관계 리더십

상호작용-기대론은 지도자와 피지도자간의 상호작용과 기대라는 관점에서 리더십을 이해하고 있다. 대표적 이론으로는 피들러(Fred E. Fiedler)가 제시한 우발이론(contingency theory)이 있다. 이 이론은 조직의 변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는 지도자의 수행과 행태에 변화를 주는 상황요인과 지도자의 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황과 지도자의 개성을 각각 세 가지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상황은 ①지도자가 피지도자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으며 피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와 관련된 지도자와 피지도자간의 관계 (leader-member relations) ②과업이 목표와 합치되고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으며 구조화되었는지와 관련된 과업구조(task structure) ③지도자의 지위가 피지도자를 보상, 처벌, 순응을 유발할 수 있는 권한(position power)이 있는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지도자의 개성은 두 가지 동기체계(motivational system)에 의해 구분되는데 하나는 ①관계중심적(relationship-motivated)인 것으로서 조

직원관의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다른 하나는 ②과업중심적(task-motivated)인 것으로서 인간관계 보다는 업무 자체를 중요시 여긴다. 결론은 리더십 행태의 효율성은 상황에 의해 야기된 우발적인 요구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과업지향형(task-oriented) 지도자는 우호적인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반면 관계지향형(relation-oriented) 지도자는 보통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스토크딜도 리더십에 대한 분석은 지도자의 자질과 피지도자의 특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상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⁷⁾

거스와 밀스(H. H. Gerth and C. W. Mills)는 리더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① 사람으로서 지도자의 동기와 특성 ② 지도자를 선택한 피지도자의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와 그를 추종하는 동기 ③ 지도자의 역할 ④ 지도자와 피지도자가 관련된 제도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개인적인 요소와 피지도자 그리고 제도간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리커트(Rensis Likert)는 지도자와 피지도자 간에 지원관계(supportive relationships)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도자와 피지도자간의 관계는 피지도자의 기대(expectations), 가치(values), 배경(background)을 고려해야 하는 상대적 과정(relative process)이라고 보았다.²⁸⁾ 지도자에 대한 피지도자의 지원행태(supportive behavior)는 높은 성취를 낳게 한다. 예를 들면 지도자가 피지도자의 직무나 복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피지도자를 참여시킬 때, 또한 지도자의 영향력을 피지도자들의 개인복지와 임무수행을 촉진시키는 데 활용할 때 조직의 성취가 크게 나타난다. 지도자가 피지도자들로 하여금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주도권 행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생산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때 집단의 단결에 기여하게 된다.²⁹⁾

27) 김순규 외, 앞의 책, pp.505-507.

28) Rensis Likert, *The Human Organization: Its Management and Valu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7), pp.47-48.

29) 김순규 외, 앞의 책, pp.509-510.

④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정치적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과 변환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 분류하고 후자의 중요성을 중요시하는 이론 체계이다. 거래적 리더십이란 상사와 부하가 임금과 노동력을 최대로 유리한 조건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본목표를 갖고 있는 리더십으로서 상명하복의 특성을 나타내는 리더십이다. 반면, 변환적 리더십은 상사가 부하에게 단순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의 신념, 가치관, 욕구를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데에 관심을 두는 리더십이다.

변환적 리더는 카리스마적 리더로서의 특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감에 차 있고 비전을 가진다. 또 “비전을 명쾌히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예외적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기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스로 변화의 대행자라고 자처하는 동시에 환경에 대해서는 민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³⁰⁾ 변환적 리더는 영감을 가지고 지적인 자극을 하며 개인적인 배려에도 인색하지 않은 특성을 나타낸다. 용기 있고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으며 평생학습을 통해 모호성, 복잡성 및 불확실성을 원만히 다룰 수 있는 능력과 기질을 키워나간다.

번스(Burns)는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추종자들의 욕구와 가치, 그리고 도덕성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직원들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감을 갖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십의 도덕적 차원을 명확하게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다른 리더십 접근법들보다 돋보인다. 번스에 의하면 조직으로 하여금 자신들 스스로의 가치와 욕구를 평가하게 해주고 더 높은 수준의 가치들, 즉 자유·정의·평등과 같은 가치들을 강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은 리더의 책임과 의무이다. 리더십을 도덕성 수준을 고양시키는 과정으로 보는 번스

30) 김석희, 앞의 글, pp.16-17.

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스의 리더십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리더십 과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³¹⁾

2. 동학사상

1) 동학의 세계관

동학은 학문과 일상생활의 삶을 동일한 하나로 보고 있다. 필연의 세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우연의 세계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자아완성, 공동체 완성으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한 동학은 학문인 동시에 삶을 통한 수행이다. 물질과 정신, 논리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이성과 지각 등 모든 것의 통합·회통·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동학의 기본논리는 그 세계관 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특히 불연기연(不然其然)의 세계관, 무왕불복(無往不復)의 순환론, 평등무이(平等無二)의 세계관은 동학의 세계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라 하겠다.

동학의 교리는 주로 한문경전 『동경대전(東經大全)』과 한글 가사체로 된 『용담유사(龍潭遺詞)』에 나타나 있다. 먼저 불연기연(不然其然)의 세계관은 살펴보자. 불연기연은 ‘그렇지 아니함과 그러함’을 뜻하는 말로 이성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본체계와 현상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수운의 독특한 논리이다. 수운은 ‘무궁한 그 이치를 불연기연 살펴내어...무궁히 알았으면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³²⁾라고 하며 궁극적 실재와 인간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설명하였다. ‘불연(不然)’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분명히 인지할 수 없는 것, ‘기연(其然)’은 이성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실을 의미한다.

31) 이준형, 앞의 책, pp.314-315.

32) 『龍潭遺詞』, 「興比歌」.

따라서 “불연이 사물의 근본 이치와 관련된 초논리·초이성·직관의 영역이라면, 기연은 사물의 현상적 측면과 관련된 감각적·지각적·경험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불연기연은 체(體)로서의 불연과 용(用)으로서의 기연의 상호관통에 대한 논리이다. 기연은 불연으로 인하여 존재하므로 모두 불연의 투영에 지나지 않으며, 불연 역시 기연으로 인하여 존재하므로 기연과 둘이 아니다. 불연의 본체계와 기연의 현상계를 상호관통하게 되면 불연과 기연이 본래 하나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동학의 불연기연 세계관은 생태 패러다임의 측면과 일치한다. 대립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본체계와 현상계를 하나로 본다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분법적 사유체계를 이미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다.³³⁾

동학은 ‘무왕불복’의 순환론적 입장을 보인다. 동학에서 말하는 순환론은 일반적인 역사관에서 말하듯 원의 시작점을 중심으로 유사한 과정을 반복하는 원형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왕불복의 순환론이란 “순환하는 가운데 양적으로 확장되고 질적으로 심화되는 거꾸로 선 원추형적 역사 발전”³⁴⁾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학에서 말하는 진보란 존재의 궁극적 확장과 심화를 통해 인간자아를 완성하는 것과 나아가 개인 각자(覺者)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완성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수운의 불연기연적 세계관은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는 뜻은 한울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같다는 의미이다.³⁵⁾ “한울(天)이란 우주 만물에 편재해 있는 보편자로서 우주의식이요 전체의 식이며 우주의 창조성 그 자체다.”³⁶⁾ 한울과 인간을 하나로 보았다는 것은 이성과 신성, 개별자와 보편자 모두가 하나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개체라는

33) 최민자, “수운과 원효의 존재론적 통일사상,” 『동학학보』 Vol.6, 동학학회, 2003, pp.273-275.

34) 오문환, 『동학의 정치철학: 도덕, 생명, 권력』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3), pp.299-300.

35) 『東經大全』, 「論學文」: “曰吾心卽汝心也.”

36) 최민자, 앞의 글, pp.274-275.

테두리가 녹아 없어지면서 상호관통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나와 너’가 모두 하나인 평등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학의 평등사상을 개인적 차원에서 실현하게 된다면 사람은 군자, 성인이 되는 것이고,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구현하게 된다면 사회는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다.

‘시천주(侍天主)’³⁷⁾의 주체로서의 자각을 통해 봉건적 신분 차별을 철폐하고 만인이 다같이 평등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천하를 만인의 공유물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동학사상의 근대성을 엿볼 수 있다. 만인을 ‘시천주’의 주체로서 자각했다는 것은 보국(保國)의 주체로서 근대적 민중의 대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세동점의 시기에 보국안민의 계책을 강조하여 근대적 민족 국가 형성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동학은 인간 평등과 민중 정치 참여의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적이고, ‘시천주’ 사상이 근대의 이분법적 사유체계를 초월했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초월한 것이다.³⁸⁾

수운은 “동학은 서양의 도와 무엇이 다르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대하여 “도인즉 같으나 이치인즉 아니니라”³⁹⁾라고 말하는 이유에도, 영성에는 동서의 구분이 없고 고금의 차이가 없으나 이를 설명하는 철학적 논리는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진리와 본질은 동일한 하나이지만 언어와 논리에 따라 그것을 밝혀내고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2) 동학사상의 본질

동학의 핵심사상으로 ‘내유신령(內有神靈) 외유기화(外有氣化) 각지불이(各知不移)’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수운의 ‘시천주(侍天主)’사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수운은 ‘시(侍)’를 ‘내유신령 외유기화 일세지인(一世之人) 각지불이’의 세

37) ‘시천주(侍天主)’에 대해서는 본 논문 pp.28-29 참조.

38) 최민자, 앞의 글, p.290.

39) 『東經大典』, 「論學文」: “道則同也 而則非也.”

가지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⁴⁰⁾ “안으로 신령이 있고 밖으로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기 알아서 옳기지 아니한다는 뜻은 인간의 내재적 본성인 신성과 생명의 유기성이 상호 관통함을 깨달아 순천(順天)의 삶을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내유신령이란 본래의 마음을 일컬음이고, 외유기화란 생명이 형성될 때 음양의 원리와 기운의 조화의 작용으로 체를 이룬 것을 일컬음이다. 여기서 신령과 기화는 애초에 둘로 된 이치가 아니라 하나의 이치를 양 방향에서 관찰한 것이다.⁴¹⁾ 우주만상을 궁극적 일자의 다양한 현현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여기서 궁극적 일자가 전체의식이요 우주의식인 동시에 곧 동학사상에서의 한울이다. 따라서 “우주 만물이 한울을 모시지 않음이 없으니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접함에 있어 한울 대하듯 하라”⁴²⁾고 한 것이다.

수운의 시천주 도덕은 단순히 개인철학이기 이전에 국가의 통치철학이다. 사람들 각자가 덕(德)을 이루어 자연스럽게 도를 따르게 되면 무위이화(無爲而化) 즉, 하지 않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것이 없는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도로 유능한 정부가 되지만 그러한 유능성은 백성들에게는 인식되지 않는 까닭에 모두가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철학에서 시작된 도덕이 국가의 통치철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정치의 대상과 주체는 결국 하나하나의 인간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개인철학과 국가의 통치철학은 결코 둘이 아닌 것이다. 무위이화의 덕을 이루면 지배와 복종의 관계 또한 피치자(被治者)가 치자(治者)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은 채 저절로 순화되므로 사실상 복종의 관계라 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치자와 피치자의 구분 자체도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평등무이(平等無二)의 세계가 현실 속에서 현현(顯現)하게 되는 것이다.⁴³⁾

40) 『東經大全』, 「論學文」.

41) 최민자, 앞의 글, pp.278-280.

42) 『天道教經典』, 「待人接物」, pp.278-288.

43) 최민자, “수운의 후천개벽과 에코토피아(Ecotopia),” 『동학학보』 Vol.7, 동학학회, 2004, pp.13-14.

동학은 정치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군주와 민의 수평적 섬김으로 보고 있다. 이 점에서 동학의 정치철학은 ‘수평적 조화의 정치철학’이라 할 수 있다.⁴⁴⁾ 동학은 통치의 정당성을 도덕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유가 전통과 비슷하지만 일체의 차별철폐를 주장하는 평등사상이라는 점에서는 주자학을 극복하였다. 특정 신분이나 경제력 등의 인위적 차별로 인해 도덕이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정치에 있어서 덕성을 강조한 동학의 사상은 생태정치학적 리더십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학의 평등사상은 정치적 객체이자 피지배 계층이었던 농민들을 정치적 주체로 성숙시켜 농민들을 19세기 후반 당시의 사회 변혁의 선두에 설 수 있게 해 준 사상적 기초였다. 수운이 19세기 말 당시의 정치·경제·사회, 국제정세에 대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내놓은 동학의 정치·사회적 지향성은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匡濟蒼生), 포덕천하(布德天下)라는 말 속에 잘 나타난다. 안으로는 깨달음을 통한 인격완성을 지향하고 밖으로는 사회 변혁과 혁명을 추구하는 것이다. 도덕적 평등주의는 바로 동학의 정치철학의 핵심 중 하나이다.⁴⁵⁾

동학의 평등사상을 도덕적 평등주의라 칭하는 까닭은 평등의 근거가 도덕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이란 수운의 ‘시천주’도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울의 근원성·포괄성·보편성이 융합되어 있다. 동학은 이를 바탕으로 인간을 물질이나 의식차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적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평등성은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천주가 있다는 사실을 체득함으로써 나온 것이다. 사람이 곧 하늘⁴⁶⁾인 것이다.

44) 오문환, 앞의 책, p.251.

45) 위의 책, pp.254-288.

46) 동학에서 말하는 ‘천(天)’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늘’의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서 부분이 아닌 전체, 만물에 내재하는 원인을 의미한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의 인본주의 논의는 하늘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이 곧 우주 본성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본다. 이때 인간은 우주질서에 있어 지고(至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하나로서 모두 존귀하기 때문에 우주의 한 부분인 인간도 존귀하다는 의미이다. 신복룡, 『동학사상과 갑오농민혁명』 (서울: 평민사, 1985), pp.209-213.

동학에서 말하는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정치적 차원의 평등이 아니라 일체 우주만물이 하나의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보다 근원적 차원의 평등이다. 그것은 하늘과 사람과 우주만물을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다. 이것은 삶과 유리된 이념적 차원의 평등이 아니라 생활 속의 구체적 실천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동학의 평등사상은 민권사상(民權思想)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는데 그 특징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자각, 민본사상(民本思想), 계급타과의 사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⁴⁷⁾ 존재의 근원적 평등에 대한 자각은 반상의 구분이 엄격하였던 조선 시대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각으로 나타나 일체의 신분질서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동학의 교리에서 “인류의 재해는 계급에 있는 것이요 경제적 계급의 차별에 있는 것이므로, 계급차별이 없고 이해가 일치하면 인간의 행복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⁴⁸⁾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서구의 평등사상이 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라면 동학의 평등은 일체 우주만물을 포괄한다. 그러므로 동학의 평등사상은 도덕적 평등주의 또는 영적 평등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⁴⁹⁾ 동학의 이상사회에서는 신, 인간, 자연, 사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 각각의 존재는 어느 하나도 일방적으로 구속됨 없이 궁극적 일자(一者)의 다양한 현현(顯現)이다. 그러므로 동학의 평등사상은 “봉건사회에서 근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평등사상이기보다는 새로운 후천(後天)의 세상을 열어 가는 평등사상”⁵⁰⁾이라고 하겠다.

47) 위의 책, pp.242-244.

48) 이돈화, 『신인철학』 (서울: 천도교중앙총부, 1968), p.153.

49) 오문환, 앞의 책, pp.294-296.

50) 윤석산, 『동학사상과 한국문학』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p.211.

Ⅲ . 생태정치학의 본질

1. 문명의 대전환

1) 이성의 도구화와 생태위기

현대의 기술문명을 발전시킨 경험과학은 자연을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현실을 오직 ‘기술적 지배의 관점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의 총체’로서만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자연경험들은 모두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⁵¹⁾ 린 화이트(Lynn White)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이 비인간(non-human)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서구의 의식구조 내지 정치문화는 인류의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한 역사적 근원이 되었다.⁵²⁾ 즉 인간이 자연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관념이 종래의 정치철학을 지배하여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분법론에 기초한 인식의 문제에서 비롯된 생태위기의 구체적 해결방안은 패러다임 전환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의 이원화에 대한 비판은 프랑크푸르트학파⁵³⁾인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와 아도르노(Th. W. Adorno)의 저작 『계몽의 변증법』에서 도구적 이성 비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19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시대였고 20세기 들어와서 세계를 양분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체제는 전체주의로 변

51) 이진우, “말없는 자연은 윤리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사회비평』 Vol.15 (서울: 나남출판, 1980), p.173.

52) 김번웅, “생태정치학적 정치이론과 공공정책,” 『한국정치학회보』 Vol.14, 한국정치학회, 2004, p.336에서 재인용

53) 프랑크푸르트학파는 1923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 설립된 ‘사회연구소’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때부터 비판이론으로 명명할 수 있는 사유의 전통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갑우, “국제정치경제(학)와 비판이론,”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2, 한국정치학회, 2004, p.308.

화한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이 특수한 역사적 현상을 우연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인류가 진정한 인간적 상태로 들어가는 대신 새로운 야만 상태로 빠지는⁵⁴⁾ 전체주의의 기원을 이성의 보편화 운동인 계몽에서 찾는다.

계몽의 원리는 인간주체의 자연지배이다. “계몽의 본질은 양자택일인데, 이 양자택일의 불가피성은 지배의 불가피성이다. 인간들은 그들을 자연에 종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연을 자기에게 종속시킬 것인지를 언제나 선택해야만 했다.”⁵⁵⁾ 자연 지배적 이성은 대상을 지배하고 조작하기 위하여 수량화하고 계산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때 이성이 곧 도구적 이성이 된다. 계몽은 외적 자연을 지배 대상으로 하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취급하기 위하여 수량화한다. 이때 비판이론의 전통에서 ‘사물화’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인간은 ‘인적자원’이 된다.⁵⁶⁾

이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자연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할 대상일 뿐이었고 여기에 자본주의 체제를 통하여 극대화된 인간 욕망의 표출이 결합하면서 생태위기가 발생하였다. 현재 전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환경과피는 이분법적 사고, 자본주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불평등의 문제와 결합하여 지속적인 생태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본주의적 산업의 환경과피에 관한 근대 사상가들의 비판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⁵⁷⁾ 그러나 이들의 생태학적 비판이 오늘날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시의 산업적 환경오염이 단순히 환경문제에 머물렀던 것에 반해 오늘날의 환경위기는 20세기 이전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지 못했던 전지구적 생존의 위기⁵⁸⁾라는 점이다.

54) David Held,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Horkheimer to Habermas*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pp.148-149.

55) M. Horkheimer & Th. W. Adorno 지음, 김유동 외 옮김, 『계몽의 변증법』 (서울: 문예출판사, 1996), p.62.

56) G. Friedman 지음, 송휘철 옮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상적 연원』 (서울: 탐구당, 1987), p.146.

57) 칼 마르크스 지음, 김수행 옮김,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1-상』 (서울: 비봉출판사, 2003), p.258; Engels F. 지음, 박준식 외 옮김,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서울: 세계, 1988), p.259 참조.

58) 생태계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책임윤리 등장, 세계의 빈곤한 인민들의 사회·경제적 조건 개선의 문제는 일국적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강정인, 앞의 책,

20세기 이후 생태학적 환경위기는 가해자(=수혜자)와 피해자가 선명히 구분되는 국제적 이해갈등의 성격⁵⁹⁾을 띠고 있었으며 환경위기가 인류 공동의 문제가 된 지금에도 그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 산업국가들이 개도국을 수탈, 착취하고 있고 개도국의 빈곤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고전적 비판은 남북경제관계의 세계경제적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당성을 지닌다.⁶⁰⁾ 선진국 산업경제의 생태학적 개조란 단순히 기술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세계 최부유국들의 국민의 1/5이 세계 GDP의 86%를 차지하는 반면 최빈국 국민의 1/5은 세계 GDP의 1%에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증가하고 있다.⁶¹⁾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인구의 27%가 소비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 결과 오염은 늘고 자원은 감소하였다. 숫자로 보면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은 세계 인구의 12%밖에 안되지만 세계 민간소비지출의 60%를 차지하는 반면 세계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남아시아 및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세계 민간 소비의 3.2%만을 차지할 뿐이다.⁶²⁾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정상회의는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소비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함을 밝히고 있다.

p.495.

59) 황태연은 이를 '환경제국주의'라고 하며 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1492-1890)는 유럽과 신대륙간 진행된 생태학적 불평등 교환기로서 경제적 남북격차가 생태학적 제국주의를 야기하였다. 2단계는 선진국이 빈국들로부터 산업폐기물 매립 장소를 매입하고 그들의 부존자원을 과도히 채취, 원시림의 파괴적 벌채, 야생동물 및 어장을 남획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도국에서의 생태계 교란을 의미한다. 3단계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전지구적 환경위기이다. 황태연,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서울: 나남출판, 1994), pp.18-24

60) 환경재앙이 발생하면 빈곤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토질악화, 사막화, 가뭄은 100개 이상의 국가들에 사는 10억 인구의 생존을 위협한다. 최근 오슬로 대학의 연구는 1970-80년대 사하라에서의 인류재앙이 1980년대 절정을 이룬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나온 산업방출에서 기인되었다고 밝혔다. UNEP, 『Our Planet』 Vol.8, UNEP 한국위원회, 2003, p.14.

61) UNEP, 앞의 책, pp.18-19.

62) 또한 전세계 국민층들에게 적절한 식량, 깨끗한 물, 초등교육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일반 국민들이 매년 화장품, 아이스크림, 애완동물 사료에 드는 비용보다 적다. 월드워치연구소 펴낸, 생태사회연구소 옮김, 『2004 지구환경보고서』(서울: 도서출판 도요새, 2004) 참조.

모든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생명 중심의 유기성을 중시하는 생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구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 환경회의가 계속되고 있으며⁶³⁾ 지속가능성⁶⁴⁾의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논의들은 비전에서 현실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모든 존재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비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세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그러자면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입각한 리더십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2) 패러다임 전환과 후천개벽

패러다임이란 토마스 쿤(Thomas S. Kuhn)이 그의 저서 『과학적 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패러다임'은 '사례·예제·실례'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쿤은 패러다임을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63) 1960년대 말부터 여러 선진국에서 각 상황에 따른 환경운동이 실시되다가 1970년대에는 자원의 한계, 지구 자정능력의 한계가 서서히 인식되면서 국제적 환경회의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어 1972년 지구 환경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국제적으로 환기시킨 최초의 국제회의인 스톡홀름의 유엔환경회의를 시작으로 1973년 UNEP 설립, 1982년 나이로비 환경회의, WCED 설치, 1992년 리우회의, 1994년 맨체스터 글로벌 포럼 등이 이어졌다. 정수복, 『녹색대안을 찾는 생태학적 상상력』(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참조.

64)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기본전략 보고서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서 빈곤퇴치, 의료보전, 환경보전 등 제반 개발의 접근법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이동하며 지역주민의 참여 중심 시민사회 모델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지속가능성의 추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사회적 웰빙'을 뜻하는 로하스(LOHAS, Life 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를 들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하스는 미국에서 이미 80년대 이후 주요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미국인의 30%이상이 로하스적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3년부터 교통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적용될 것을 전망되면서 자동차, 섬유, 건설 등 일부 업종에서 로하스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초보단계이다. 조선일보 2004년 08월26일자 특집 D1면 & 조선일보 2005년 2월22일자 경제B4면 참조.

새로운 패러다임은 그것이 필요한 시기보다 먼저 나타난다. 토마스 쿤은 이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의 패러다임이 나타나면 이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탐구 활동을 하는데 이를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라고 한다. 이어 정상과학을 통해 일정한 성과가 누적되다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차츰 부정되고 경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난다. 그러다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한 시대를 지배하던 패러다임은 완전히 사라지고 경쟁관계에 있던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고 항상 생성·발전·쇠퇴·대체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⁶⁵⁾

이러한 맥락을 통하여 본다면 ‘현대의 전환과 혼란은 보다 깊숙한 곳에서 연원한 전 문명사의 전환’⁶⁶⁾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과학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에 의하면 전 지구적인 각종 위기 현상은 하나의 동일한 위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본질은 인식의 위기이다. 또한 이것은 이미 낡은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의 관점을 현실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데서 연유된 위기라고 한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생물·심리·사회·환경 현상이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이러한 세계를 적절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전망이 필요하다고 본다.⁶⁷⁾

근대의 ‘자연’ 개념은 데카르트가 실재를 ‘연장하는 것(res extensa)’과 ‘생각하는 것(res cogitans)’으로 구분하고 인간의 본질적 속성(자연)인 육체까지도 연장하는 실체로 파악함으로써 극단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자연은 무한히 착취당하고 원칙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따라 근본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베이컨의 신과학과 데카르트의 생각

65) <http://100.naver.com/100.php?id=771710>

66) 김지하, 『생명학2』 (서울: 도서출판 화남, 2003), p.256.

67) Fritjof Capra, *The Turning Point* (New York : Simon & Schuster, 1982), pp.29-30.

하는 것과 연장하는 것의 구분으로 서구철학은 ‘이성의 광적인 확신’⁶⁸⁾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것은 강력한 자본주의 체제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달이 세계적인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⁶⁹⁾

이성에 바탕을 둔 패러다임 하에서는 이원론에 입각한 물질 지향의 세계관이 지배하였다. 이원론은 신성과 이성의 갈등은 물론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 등 모든 존재의 대립구도를 가져왔고, 극도로 발전한 물질문명은 환경파괴, 가용자원의 고갈, 인간소외 문제 등 인류의 생존기반 자체를 위협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와 같은 물질문명의 폐해를 극복하고 인류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 자체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구 패러다임에서 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물질시대에서 의식시대로의 전환이며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통합적인 세계관으로의 전환이다. 생태위기의 근본 원인이 인식의 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인식을 주도하고 있는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해야만 위기의 근본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생태위기나 인간소외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명 그 자체에 관한 문제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수운의 후천개벽 논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개벽이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천개지벽(天開之闢)’에서 유래한 말로서 쉬임 없이 열려 변화하는 우주의 본성을 일컫는 것이다. 수운의 후천개벽(後天開闢)은 “유위(有爲)와 무위(無爲)가, 사람과 하늘이 변증법적 통합을 이루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다시개벽”이다. 후천(後天), ‘다시개벽’⁷⁰⁾의 구분은 우주 1

68) 구승희, 『에코필로소피-생태·환경의 위기와 철학의 책임』 (서울: 새길, 1995), pp.30-32.

69) 콜드웰(Lynton Caldwell)은 환경훼손 및 파괴의 원인 중 하나로 사회경제체제 자체의 필연적 문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는 행정적 규칙 또는 사법적 통제로는 불충분하고 근본적으로 사회제도의 재설계와 정치경제체제를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이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등 정치이념의 양극화를 초월한 균형사회 또는 정상상태의 사회로의 체제전환을 의미한다. 생태학적 위기와 관련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는 시장적·경쟁적 메커니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김변웅, “생태정치학적 정치이론과 공공정책,” 『한국정치학회보』 Vol.14, 한국정치학회, 1980, pp.349-350에서 재인용.

년의 기간을 처음으로 밝혀낸 소강절(邵康節)의 구분법에 근거한 것이다.

전반의 6개월이 성장하고 분열하는 선천시대(先天時代)라고 한다면, 후반 6개월은 수렴·통일의 후천시대(後天時代)이다. 건도(乾道)의 시대인 선천시대는 음양상극(陰陽相剋)으로서 일체의 분열적인 현상이 나타나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곤도(坤道)의 시대인 후천시대는 음양지합(陰陽之合)으로서 대립되었던 일체의 요소들이 통합을 이루어 물질과 정신, 이성과 신성, 논리와 직관 등이 하나로 융화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¹⁾

후천개벽은 천시(天時)와 인사(人事)의 조응관계⁷²⁾에 기초한 것으로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궁극적 의미의 통합이며 생태 패러다임과 직결되는 것이다. ‘시천주’를 통해 나타난 수운의 후천개벽 원리는 우주만물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다. 생태 패러다임은 모든 만물에 깃들여 있는 생명, 그 고귀함과 숭고함을 깨달아 모두가 평등하게 상생하는 세상이 구현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천개벽은 ‘힘의 지배시대’의 종언인 동시에 ‘시천주’로서의 자각적 주체에 의한 생명시대의 개창”⁷³⁾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생명시대의 개창은 곧 생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카프라의 ‘시스템적’ 세계관⁷⁴⁾도 우주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연대성에 기초한 상생의 패러다임 즉, 생태 패러다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하이젠베르크(Werner Heisenberg), 보어(Niels

70) 『龍潭遺詞』, 「安心歌」: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요순성세 다시 와서 국태민안 되지 마는 기험하다 기험하다 아국운수 기험하다.”; 『龍潭遺詞』, 「夢中老少問答歌」: “천운이 들렸으니 근심 말고 돌아가서 윤회시운 구경하소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71) 우주 1년의 12만 9천6백 년 가운데 인류 문명의 생존 기간은 乾運의 先天 5만 년과 坤運의 後天 5만 년을 합한 10만 년이며, 나머지 2만 9천6백 년은 빙하기로 천지의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이다. 최민자, “수운의 후천개벽과 에코토피아(Ecotopia)”, p.3.

72) 『皇極經世書』, 「纂圖指要·下」: “天之時由人之事乎. 人之事由天之時乎. 時動而事起...”

73) 최민자, “수운의 후천개벽과 에코토피아(Ecotopia)”, p.9.

74) Capra, *op. cit.*, pp.29-30.

Bohr)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 물리학의 실재관인 동시에 동양의 실재관이기도 하다.⁷⁵⁾ 카프라의 시스템 이론은 케슬러(Koestler)의 '홀론(Holon)' 개념, 미국의 뇌생리학자인 칼 프리브람(Karl Pribram)⁷⁶⁾이나 데이비드 봄의 '홀로그래피' 이론으로 연결된다. 또한 이것은 모두 동양의 도(道)와 기(氣)의 세계관과 흡사하다.

자연과학과 철학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자연과학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물리학의 경우 탐구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 이르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단계를 불가피하게 넘어설 수밖에 없으며 이때 형이상학이나 가치의 영역, 패러다임 등에 의존하게 된다. 철학 역시 초경험의 영역을 탐구하는 동시에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주의 근본적 사실을 탐구하는 물리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뉴턴으로 이어지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이 철학의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생태학적·물리학적 이론의 틀이 동시에 마련되고 그것이 동양의 세계관과 이론적 실천을 추동할 수 있는 여건에서 이루어야 할 과제는 자연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다.⁷⁷⁾

2. 생태정치학의 본질

1) 생태주의와 생태 패러다임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생태'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생태

75) 최민자, "수운의 후천개벽과 에코토피아(Ecotopia)", pp.10-11.

76) 미국 뇌생리학자 칼 프리브람은 그의 홀로그램 이론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뇌세포 하나하나 안에 우주 삼라만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가해하고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온갖 현상과 사태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지하, 『생명학1』 (서울: 도서출판 화남, 2003), p.157.

77) 한면희, 『환경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pp.234-238.

패러다임을 논하기에 앞서 ‘생태학’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생태학이라는 말은 희랍어의 ‘오이코스(οικος)’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18세기까지만 해도 ‘가계(家計)’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경제행위가 복잡해지면서 한편으로는 ‘경제학,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학’으로 발달하였다. 이때의 생태학은 생명체들 간의 관계, 또 이들이 속한 환경에 대한 관계를 탐구하는 생물학의 인접학문으로서의 생태학을 의미한다. 이렇듯 생태학의 대두는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그 기본은 “복거(卜居)와 섭생(攝生)의 원리”에 있다.⁷⁸⁾ 복거와 섭생의 원리는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원리로서 근본 바탕에 자연이 있는 것이다.

인간과 환경에 관한 연구의 효시는 1920년대 시카고학과인 맥켄지(R. D. McKenzie), 버जे스(W. Burgess) 등에 의해 연구된 인간생태학이다.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조직생태학, 심층생태론, 사회생태론, 생태사회주의, 생태마르크스주의 등을 통해 인간과 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⁷⁹⁾ 서구 생태론은 환경위기의 원인을 근대 사회의 구조로 보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결합하는 관계가 환경이라 본다면, 근대이전의 환경은 ‘인간↔자연’의 관계로 구성되었던 것인데 반해 근대와 근대 이후의 환경은 ‘인간←인간과 인간관계→자연’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⁸⁰⁾

오늘날 환경 문제의 발원은 인간 중심의 물질적 편익 생산을 극대화하는 거대 사회 시스템에 있는 만큼 그 해결을 위해 이를 해체하고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는 자율적인 공동체 삶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사회 생태주의’, 자본의 끊임없는 축적 욕구가 지속되는 한 인류 사회는 더 이상 지탱 할 수 없다고 보면서 녹색성을 중심으로 하는 축적 체제의 재구축을 추구하는 ‘생태사회주의’, 대

78) 구승희, 앞의 책, pp.47-48.

79) 정대연, 『환경사회학』 (서울: 아카넷, 2002), pp.131-132.

80) 조명래, 『녹색 사회의 탐색』 (서울: 한울, 2001), p.179.

안 민주주의 논의와 생태론을 결합하는 ‘생태 민주주의론’ 등은 모두 생태 중심주의의 급진성을 표방하는 담론들이다.⁸¹⁾ 그러나 서구 생태론의 대표적 유형인 심층생태론, 사회생태론, 생태사회주의 및 생태마르크스주의는 환경의 의미를 자연환경에 한정시켰다.

생태학이 정치학 분야로 침투하는 데는 특히 사회생태론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사회생태론(social ecology)은 머레이 북친(M. Bookchin)에 의해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들은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에 있는 바, 환경문제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생태론은 자연과 사회적 삶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환경운동을 포함한 생태운동은 사회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지배와 위계질서를 생산하는 인간사회에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도적인 변화까지 추구할 것을 촉구하였다.⁸²⁾

환경위기 및 환경운동에 직면하여 서유럽 보수이론계는 처음에 지극히 현실안주적인 논리로 환경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정치적 탄압을 서슴치 않았으나 도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응은 사회구조 자체의 포괄적 변혁이 아니라 환경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기술주의적 정책⁸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생태적 위기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이는 달성될 수

81) 조명래, “녹색 정부의 개념, 유형, 차원,” 『환경과 생명』 Vo.32, 환경과 생명사, 2002, pp.30-31.

82) Murray Bookchin, *Toward an Ecological Society* (Montreal: Black Rose Books, 1980), pp.136-140.

83) 기술주의를 넘어 환경위기에 일정한 정책적 실천력을 발휘하는 비판적 보수주의 경향의 환경이론으로 ‘생태학적 케인즈주의’를 들 수 있다. 이 접근법은 국가의 거시적·간접적인 ‘보이는 손’으로 사회적 목표설정, 따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규제, 조정하는 사회적 시장(sozialer markt) 개념을 생태학적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이론적 시도이다. 이러한 보수적 접근법에 대한 서유럽 좌파 정당의 정책적 대안으로서는 경제구조의 ‘생태학적 현대화론’이 있다. 이 이론은 ‘후기 산업적 정보서비스 사회’ 방향으로 산업구조 변경을 가속화함으로써 물질적 산업 부분을 현격히 축소시키고, 잔존하는 산업을 비교적 생태학적 친화성을 갖추게 함으로써 생태학적으로 조화로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충분히 발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황태연, 앞의 책, p.58.

없다. 환경 위기의 가장 근원적 원인은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욕망이고 인간의 우월성을 지지하는 인간 중심성이 자연에 대한 지배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지배적 가치관은 서양에서 두드러진 것이었다.⁸⁴⁾ 서양에서도 자연에게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인간 중심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모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개체론적 접근법을 취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직접적 보호를 이론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체론적 특성을 띤 견해도 서양에서 등장하였다.⁸⁵⁾ 그러나 이 이론들은 모두 환경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사고를 지적하였지만, 정작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자연의 내재적 가치론 역시 이분법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⁸⁶⁾ 이처럼 이분법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개체론적 접근법을 유지했던 서양의 기존 생태주의가 전체론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것이 서양의 기존 개념 체계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이분법론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전체론에 빠지게 된다. 이에 반해 동양의 자연관과 세계관은 생태 패러다임과 양자 물리학의 형이상학적 해석이 제시하는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⁸⁷⁾ 물론 동양의 자연관도 지역에 따라 출처나 내용이 다소 다르다 해도 그 근본 바탕인 전일적 실재관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살펴본 생태학에 관한 담론들은 생태 패러다임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과도기적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통합적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뿐 아니라 천시(天時)와 인사(人事)의 융합이라는 거시적 틀을 의미

84) 한면희, 앞의 책, pp.227-228.

85) 심층 생태주의, 롤스톤 및 켈리콧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86) 유일하게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은 것은 양자론(quantum theory)에 근거한 켈리콧의 가치론이다. 그러나 켈리콧의 이론도 자연과 나와의 양자 관계만을 반영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한면희, 앞의 책, p.228.

87) 위의 책, p.228.

하는 생태 패러다임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의 생태학 담론들은 극히 한정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생태 패러다임은 정신·물질 이원론에 기초한 기계론적 세계관이 생명과 존재의식의 자각을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통합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하여 인간과 자연이라는 두 개의 대상을 설정한 기존 생태학 담론들이 생태 패러다임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생태 패러다임은 기존 사고의 틀 자체의 변환이다. 기존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산업문명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공존의 대안적 사회를 마련하려는 모색의 중심에 생태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생태 패러다임에 근접한 것으로 시스템적 세계관을 들 수 있는데 카프라는 이를 “인간중심의 패턴이 더 큰 세계, 즉 자연계의 흐름과 톱니바퀴처럼 조심스레 맞물려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다만 생태 패러다임은 이 개념을 더 확장하여 존재계와 현상계, 생명체와 무생물, 논리와 직관 등 기존의 모든 이분법적 갈등구조들이 맞물려 하나의 과정을 이룸을 의미한다. 또한 이 모든 요소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밀접하게 상호 연계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호유기성, 상호관통은 자연, 사회, 철학의 각 분야, 특히 과학 분야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크로포트킨(Kropotkin) 이래 지속된 많은 생물학자, 생태학자들의 관찰과 연구에 의해 생물 생태의 기본 질서는 경쟁과 투쟁이 아니라 오히려 상부상조와 공생임이 밝혀졌다. 라코프(Lakoff)는 생명을 규정해주는 특징을 “자기생성적 네트워크의 유무”⁸⁸⁾로 설명한다. 카프라도 생명체는 조직적으로 닫힌 구조로 자기생성적 네트워크지만, 물질 및 에너지 차원에서는 열린 구조라고 설명하며 생명현상을 시스템 자체의 속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에 대해 인지적·과학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생명과 정신과 의식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생태 패러다임의 접근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8) G 레이코프 외 지음, 임지룡 등 옮김, 『몸의 철학』 (서울: 박이정, 2002), pp.26-28.

21C는 4D의 시대, 즉 유전자(DNA)·정보화(Digital)·디자인(Design)·영성(Divinity)의 시대라고 불리운다. 이는 물질문명이 극에 달하면서 스스로의 본체인 영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⁸⁹⁾ 생태 패러다임이 왜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은 동양의 전일적 실재관, 동학의 ‘시천주’ 사상, 해월의 삼경사상(三敬思想)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이 사상들은 모두 내재와 초월, 본체와 작용의 합일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동양의 전일적 실재관이란 우주 만물의 개체성은 한울, 즉 하나의 궁극적 실재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의미로서 동학의 ‘시천주’사상에 그대로 나타난다. ‘내유신령 외유기화 각지불이’를 바탕으로 한 수운의 ‘시천주’ 사상은 인간의 내재적 본성인 신성과 혼원일기(混元一氣)로 이루어진 생명의 유기성과 상호관통을 깨달아 순천의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侍)’의 철학은 우주의 실체가 의식이고 그 본질은 생명임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⁹⁰⁾

해월은 “마음이란 것은 내게 있는 본연의 한울이니 천지만물이 본래 한마음이니라”⁹¹⁾ 라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하여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삼경(三敬)’사상이 우주만물의 질서를 이루는 바탕이라고 보았다.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에 기초하여 하늘과 사람과 만물을 하나로 관통함으로써 일체 만물이 궁극적 실재의 현현이라는 ‘삼경’사상은 정신·물질 통합의 생태 패러다임과 일치하는 것이다.

생태 패러다임에서 영성이 강조되는 것은 특정 종교의 사상이나 무속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성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성에 가리워져 소홀히 여기고 터부시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여 이성과 영성의 균형을 되찾아 조화⁹²⁾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89) 최민자, “수운의 후천개벽과 에코토피아(Ecotopia)”, p.11.

90) 최민자, “수운과 원효의 존재론적 통일사상”, p.252.

91) 『天道教經典』, 「靈符呪文」, p.289: “者 在我之本然天也 天地萬物 本來一心.”

92) 생태 패러다임에서 말하는 영성의 강조는 ‘이성:영성=50:50’의 상태에서 영성만을 강조하는 ‘이성<영

제정일치 시대였던 고대에 이성과 영성은 하나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근대 과학과 계몽주의의 발달로 이성적 측면만이 강조된 결과 영성은 이성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성과 영성의 이분화현상은 필연적으로 정신의 황폐화를 초래함으로써 인간소의 현상, 정체성의 상실, 도덕성의 상실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생태 패러다임은 현대 문명의 근원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서 일체의 불평등한 대립관계를 통합하고 우주 한생명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생태 패러다임에서 영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성과 영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이성을 무시하고 영성적·정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생태 패러다임은 혼원일기로 이루어진 우주 만물이 하나의 전체임과 동시에 각 개체의 고유성이 살아 있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체의 분절적인 사상을 극복하고 통합적·포괄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생태 패러다임의 핵심가치는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와 사랑⁹³⁾이다. 주체와 객체의 불평등한 이원화 구조가 현재 인식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이라면 생태 패러다임은 만물의 존귀함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나와 너’가 하나로 존재하는 생명 중심의 통합적 패러다임으로서 인식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생태정치학

21세기 정치학의 메가트렌드(megatrend)인 생태정치학(eco-politics)은 근대 산업문명의 폐해라 할 수 있는 국가·지역·계층 간 빈부격차, 지배와 복종, 억압과 차별,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존의 대안적 사회를 마련하려는 모색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생태정치학은 정신과 물질, 생산과 생존 등 기존

성’의 의미가 아니다.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이성>영성’의 상태에서 영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성:영성=100:100’의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93) 모든 만물에 대한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만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아니다. 그것과 더불어 여기서 의미하는 사랑은 아가페(agape)를 뜻하는 것으로서 행위와 선택에 따른 사랑이다. 제임스 C. 헌터 지음, 김광수 옮김, 『서번트 리더십』(서울: 시대의 창, 2004), p.142.

의 이원론을 극복함으로써 산업문명을 넘어서는 탈근대주의에 닿아 있다. 서구적 근대의 극복을 위한 생태정치학적 대응은 일체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지향하여 윈-윈(win-win) 게임의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21세기 정치학의 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⁹⁴⁾

생태문제는 종합성, 포괄성 및 다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변화하는 생태학적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학에도 생태학적 차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생태학은 정치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문제는 의식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서부터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공동사회의 생존문제이며 이는 곧 생태학적 제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⁹⁵⁾

오펔즈(William Ophuls)는 인류의 생태학적 위기를 대처할 것으로 기대되는 균형사회의 정치체제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개인주의는 지역주민의 공생주의(communalism)로 전환되어야 한다. ② 베이컨(Francis Bacon) 계통의 과학적 환원주의(reductionism)보다는 체제 패러다임으로서 전체론(holism)이 강조될 것이다. ③ 노·장자의 도(道), 무위자연 사상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④ 인간과 비인간(non-human)을 동등시하는 자연관이 바람직하다.⁹⁶⁾

이와 같이 ‘생태’라는 용어가 비단 환경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논한 바 있다. 생태 패러다임은 전일적 실재관을 바탕으로 세상 만물의 상호소통과 유기성, 상호의존성 등을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두루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 생태정치학은 열린사회와 수평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의 흐름에 적합한 정치로서 시스템적 세계관, 생태 패러다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생태정치학은 생태 패러다임을 기용한 것으로서 진정한

94) 최민자, “수운의 후천개벽과 에코토피아(Ecotopia)” 참조.

95) 김변웅, 앞의 글, pp.344-345.

96) William Ophuls, *Ecology and the Politics of Scarcity*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1977), pp.226-242.

지구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개체성과 전체성이 하나라는 통합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는 필연을 인정하는 겸허함을 전제로 '선택·결정'하는 인간 자유의지의 총체이다. 정치라는 행위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서 '치열한 현실의 장(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실재가 현실을 바탕으로 한 관념의 구성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학은 본래 관념과 실재, 이론과 현실을 두루 포괄하는 통합적이며 역동적인 학문이고, 생태정치학의 필요성도 이로부터 생겨난다. 모든 다양한 영역의 해석과 전망과 논의를 실천의 장에서 통합시킬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정치학이다.

지금까지 주로 철학·사회학 및 경제학 분야에서 생태학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담론의 수준에서 영향력 있는 실천단계로의 이행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생태정치학이라는 개념이 전혀 생경한 것은 아니다. 이미 녹색정치, 사회 생태주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분파되어 논해져 왔으나 사실상 그 개념이나 사상이 정치학에서 소수의 담론에 머물렀을 뿐이다.

녹색 담론들은 서구의 경우, 1980-90년대 들어 다양한 정치적 실험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부가 출현하는 배경이 되었다.⁹⁷⁾ 환경 문제는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의 통치체제는 복잡한 생태문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사후적 반응에 치우치는 경향이 크며 관리 주체와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주체와 객체의 구분법에 기초한 기존 생태정치학 논의는 근대적 인간중심주의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였다. 종래의 정치철학은 이원론적 입장에서 인간이 자연에 비하여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97) 1980년대 녹색당의 현실 정치 참여로 가시화한 '녹색당 유형의 정부', 환경 관리의 비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환경 관리주의 유형의 정부', 환경과 경제의 상생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생태적 근대화를 도모하는 '환경 권위주의 유형의 정부', 1990년대 들어 리우 회의 이후 국가-시민사회-시장 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녹색 거버넌스 유형의 정부', 환경과 복지를 매개하는 '환경복지주의 유형의 정부' 등은 모두 생태 중심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부 형태들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정부를 우리는 '녹색 정부'라 부른다. 조명래, 앞의 글, p.31.

물론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관념 하에 자연은 ‘비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정치적인 것’은 인간에게 국한하여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왔기 때문이다.⁹⁸⁾

실제로 녹색정부 논의 속에서도 사회체제 전반에 대한 비판적 고찰⁹⁹⁾과 통합적 접근법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녹색성이 중심이 되는 대안 사회에 관한 이상은 물론, 민주·평등·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권력의 문제로부터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 문제까지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체제 전반의 통합적 사고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생태 패러다임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만물을 종합하고 포괄하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생명과 영성의 논리에 입각한 시스템적 세계관이다. 생태적인 것은 곧 영적인 것과 통하므로 정치학에 영성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영성이라는 단어에 내포된 종교적 의미로 인해 정치학과 영성의 연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영성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생태적·영적이라는 말은 만물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루어져 있는 한 생명임을 의미한다. 생태적 자각은 생명의 유기성과 상호관통을 직관적으로 깨닫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영적이다.

정치학은 인간, 인간을 둘러싼 환경,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 문화 등의 주변 환경 모두를 포함하는 학문이다. 정치학의 모든 대상이 그 내면에 영성을 지니고 있다면 정치학과 영성의 연계는 필연적이고도 당위적인 것이다. 동양의 전통 사상은 일관되게 영성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동학에서는 ‘시천주’ 논의를 통하여 영성의 측면이 자각적 주체에 의한 정치적 실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98) 김번웅, 앞의 글, p.336.

99) 기존의 제도들 내에 단기적 경제이윤 추구 동기가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요구하는 생태적 이슈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존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는 권력 관계들, 즉 권력이나 화폐를 매개로 한 특정 지배유형이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지배적 정치·경제·사회의 의존 관계를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녹색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행위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사회체제 전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 정규호, “녹색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환경과 생명』 Vol.31, 환경과 생명사, 2002, p.31.

생태정치학의 바탕은 근래 들어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고래로부터 존재해왔고 과거 성현들을 통해 이미 그 이상향이 제시되어왔다. 율곡은 자신의 학문을 성학(聖學)이라 부른다. 성학이란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모든 백성에게 덕을 베푸는 왕이 되는 것으로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공부이다. 인간의 도와 덕은 하늘의 질서 혹은 생명의 실상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외면과 내면의 법칙은 서로 일치하게 된다는 의미이다.¹⁰⁰⁾ 즉 영성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을 분리하지 않고 다만 안(內) 밖(外)으로 구분하여 둘의 일치와 조화를 강조했던 것이다.

생태정치학은 직접정치 시대의 도래와 무관하지 않다. 물질중심의 권력 지향적이고 경직된 기존의 닫힌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모순들은 모두 반생태적이고 반생명적인 것이다. 직접정치의 기본개념¹⁰¹⁾은 공공의 이익을 중심축으로 사적인 것을 배제하고 투명한 공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서 생태정치학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직접정치는 자각적 주체로서의 정치 참여¹⁰²⁾를 의미하는 것이다.

직접정치를 통한 직접참여를 통해 구성원 각자는 변혁의 주체가 되고 구성원의 존재의식 자각과 확산을 통해 개혁의지를 유도해내는 것이 바로 리더이다. 자신이 직접 선택하여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한 사람만이 진정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을 갖게 된다. 또한 개인가치와 공동가치의 결합은 공동체가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양이 된다. 통합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생태정치학은 진정한 자기실현이 실천적 정치차원과 연계되어야 함을 전제로 개체성과 전체성이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혼돈과 무질서 시대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생태정치학은 역사학, 철학, 윤리학,

100) 오문환, 앞의 책, pp.227-228.

101) 최민자, 『직접시대』 (서울: 도서출판 범한, 2001), pp.147-154.

102) 개인의 주체적 자각은 수운의 '시천주' 논의와 통하는 것이다. 본 논문 PP.89-90 참조.

심리학, 사회학, 의학, 과학 등 무수하게 다양한 모든 분야로부터의 총체적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치학의 특성이 추상적 관념론이 아니라 이론과 현실이 바로 맞닿아 있는 것이므로 생태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치학은 새 시대에 꼭 필요한 필수 과제임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진정한 학문은 그 앎(知)이 행함(行)으로 연결될 때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생태정치학은 그 학문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접근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다각적인 분석과 관찰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는 있어도 생명을 중심에 둔 통합적 시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상을 그려내기 어렵다. 그러나 모든 다양한 영역의 해석과 전망을 정치학적 측면에서 통합시킬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이유로 생태정치학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매우 유망하고 매력적인 학문일 수 있다.

3. 동학사상과 생태정치학

1) 패러다임 전환의 사상

동학사상과 생태정치학은 기존의 사고·가치관이라는 거시적인 틀, 생활의 관 자체의 획기적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사상으로서 공통점을 갖는다. 동학은 “만인이 한울의 마음을 회복하여 소아(小我)의 유위(有爲)가 아닌 대아(大我)의 무위(無爲) 즉 천리(天理)를 따르게 되면 동귀일체(同歸一體)가 이루어져 후천개벽의 새 세상이 열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우주의 자정작용의 일환인 “천지개벽의 도수(度數)에 조응하여 인위(人爲)의 정신개벽과 사회개벽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지가 합덕(合德)하는 후천의 새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¹⁰³⁾

동학사상에 선천·후천의 구분은 생태정치학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와 일치해 있다. 선천의 시대가 기계론적·분절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닫힌 사회였다면 후천의 시대는 통합적·유기체적 세계관을 기초로 한 열린 사회이다. 분절적인 세계관 하에서의 사회는 모든 대상을 최소한의 독립된 개체로 분해하고 구분 짓고 분류하는 특징을 바탕으로 가부장적, 서열화, 계층화 되어있는 수직사회인 반면, 통합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사회는 모든 개체를 하나의 연결된 유기체로 묶으로써 각각의 개체를 동일한 실재의 다양한 표현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후천의 시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등한 관계 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 정신과 물질을 모두 하나로 아우르는 동등한 입장의 수평사회이다. 이러한 변화는 제한된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으로는 소규모의 조직에서부터 거시적으로는 국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총체적이며 궁극적인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이다.

생태적 자각이란 본질적으로 영적이며 이는 동학의 내유신령 외유기화 각지 불이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¹⁰⁴⁾ 모든 생명의 존귀함과 유기성을 깨달아 천리(天理)에 순응하는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태적이며 영적이다. 생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원론에서 비롯된 갖가지 폐해를 극복하려는 생태정치학적 시도는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으로부터 동양의 전일적 실재관으로의 전환”, 즉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동학의 후천개벽 사상 역시 패러다임 전환의 사상이다.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인간의 고유한 내재적 본성을 회복하여 평등무이(平等無二)의 세상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후천개벽은 힘이 지배하는 완력의 시대가 끝나고 생태정치에 기초한 생명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문명의 대전환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수운의 사상은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

103) 최민자, “수운의 후천개벽과 에코토피아(Ecotopia)”, pp. 6-7.

104) 위의 글, pp.11-12.

인 전일적 실재관을 제시함으로써 서구의 기계론적 세계관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가치체계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이 역시 생태 패러다임과 일치하는 것이다. 동학사상은 전통적인 이분법을 극복하고 생태철학적인 시각에서 자연과 인간의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생명경외사상에 입각하여 일체의 봉건적 신분차별을 철폐하고 우주자연-인간-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구현하는 것은 생태정치학의 실천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수운이 말하는 후천의 시대는 이성과 영성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 즉 생태 패러다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동학사상과 생태정치학은 ‘생명’을 최고의 핵심가치로 삼는다. 동학사상은 불연기연 논리의 핵심인 ‘시천주’도덕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이를 바탕으로 한 평등무이의 세계를 후천의 시대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명과 맥을 같이하는 생태 패러다임은 통합적·포괄적 세계관을 통해 인간 본래의 실존문제와 모든 존재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면서 ‘생명’이 중심이 되는 에코토피아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수운의 후천개벽 사상은 그 자체 속에 에코토피아적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고 생태 패러다임과 더불어 21세기 생명시대를 여는 원리”¹⁰⁵⁾로 작용한다.

2) 이론과 실천의 통합

동학사상과 생태 패러다임에서 이론과 실천은 하나이다. 앎과 행함은 별개의 객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장에서 ‘생활’의 형태로 한데 어우러진다. 동학에서 말하는 무극대도(無極大道), 후천개벽 사상은 현실과 유리된 고루한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 접포제(接包制) 실시와 같은 실질적인 방안을 통해 현실 태로서의 도덕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때 덕(德)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105) 위의 글, p.14.

가능성으로서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관념에 머물렀던 이론과 사상이 자연스럽게 현실 속으로 들어와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현실 그 자체가 이상향이 되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동양에서 정치와 덕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주공의 ‘도끼날과 도끼 손잡이의 비유’에서 손잡이가 없이는 도끼날을 사용할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정치권력과 도덕이 분리되어서는 어느 한 쪽도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와 도덕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면 도와 덕은 더 이상 추상적 관념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를 통하여 ‘행(行)’의 날개를 얻음으로써 실현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정치가 도덕과 분리된다면 더 이상 정치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동양 정치철학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내성외왕(內聖外王), 수기치인(修己治人), 위기지학(爲己之學) 등의 개념을 통하여 정치철학적으로 정교화 되었다.¹⁰⁶⁾

생태정치학에서 강조하는 정치와 영성의 결합은 동양의 정치사상에서 덕치(德治)¹⁰⁷⁾의 형태로 이미 오래 전에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발전되었다. 정치와 영성의 결합은 곧 정치와 도덕의 결합이기도 하며 이때 도덕은 실천과 통합된 것이다. 특히 현대의 리더십론이라 할 수 있는 고대의 ‘성왕론(聖王論)’은 ‘덕을 바탕으로 한 정치의 정수(精髓)’라고 할 수 있다. 성왕론은 왕의 덕성과 정치를 직결시키면서 관념적 차원의 도덕과 실천적 차원의 정치를 안(內)과 밖(外)으로 구분하면서 하나인 동시에 둘이요 둘인 동시에 하나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의 정치학에서 미흡했던 것은 주요 관심대상이 통치였으므로 영성 자체는 통치보다 하위인 경향, 즉 통치의 도구적 수단으로 사용된 경향을 배제

106) 오문환, 앞의 책, p.243.

107) 덕치는 지도자의 도덕적 감화력을 통해 백성을 교화시킴으로써 범죄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통치원리이다. 이러한 덕치사상은 지도자가 술선수범하여 도덕적 모범을 보일 때 백성들도 사심없이 양보하고 협동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강정인, “덕치와 법치: 양자 겸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Vol.6, 한국정치사상학회, 2002, p.73.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신적인 측면을 중시했지만 형식적인 측면도 중시되면서 왕과 백성은 여전히 확연히 구분되는 신분상의 차이를 갖고 있었고 왕은 ‘다스리는 존재’, 백성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임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이 동등한 가치로 중요시되고 강조된 학문이 바로 과거의 동학이요 현대의 생태정치학이다. 수운은 평등에 관한 논의를 단순히 개인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인민에게 확장시켰다. 즉 “내적으로는 하늘마음과 같아지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모든 존재들이 평등한 존재가 되는 정치·사회 질서를 구현하는 적극적 실천으로 발전”한 것이다.¹⁰⁸⁾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인간 보편성은 과거의 ‘성왕론’에 비해 훨씬 발전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동학은 조선시대 사회구조적인 병폐의 주원인이었던 주자학의 형식적 윤리체계를 비판하였다. 동학에서 말하는 ‘시천주’ 도덕의 요체는 수심정기(守心正氣)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심정기란 본래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¹⁰⁹⁾으로 생명의 유기성과 상호관통을 깨달아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수심정기란 우주 한생명에 대한 자각적 실천의 나타남이다. 수운이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옛 성인의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는 오직 내가 다시 정한 것이라”¹¹⁰⁾고 한 것이나, 해월이 “수심정기가 아니면 인의예지의 도를 실천하기가 어렵다”¹¹¹⁾라고 한 것은 수심정기가 각 개인의 자각적 실천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실천과 유리된 당시의 형식적 윤리체계와는 다른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맹자도 수기(修己)가 먼저고 그 다음이 치인(治人)이라 하였으며 그 계통을 이어받은 것이 조선시대의 율곡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체계는 성리학으로

108) 오문환, 앞의 책, p.297.

109) 『天道教經典』, 「守心正氣」

110) 『東經大全』, 「修德文」: “仁義禮智 先聖之所教 守心正氣 惟我之更定.”

111) 『天道教經典』, 「修心正氣」, p.300: “若非守心正氣則 仁義禮智之道 難以實踐也.”

발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에 치우치게 됨으로써 부조리의 근원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것이 17C의 실학이었지만 실학 역시 형식적 윤리체계의 근본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존 사회구조에 대한 실질적 비판과 운동으로 등장한 것이 19C 동학이었다. 동학은 특히 모든 개인의 자각적 실천을 중시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동학은 당시의 주자학이 양반지배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실천과 유리되고 민중을 외면하였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¹¹²⁾ 따라서 동학의 수심정기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인격 수양이라는 구체적 행(行)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론과 실천의 합일을 보여주고 있다.

동학사상에서 이론과 실천의 통합적 측면은 육임제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육임제는 접포제(接包制)의 포(包)에 창설된 것으로 도집과 집장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특히 동학의 가장 핵심적 부분 중 하나인 개혁과 질서의 새로운 확립이 정치적 자율 권력기구로 확대되어 나왔다는 점에서 육임제의 독특한 면모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동학은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그러나 내적수양에 그 중심을 둔 독특한 민초적 자치운동”이다.¹¹³⁾

상술한 동학의 원리는 실천 즉, ‘행(行)’을 강조한 것이다. 주자학이 압도적이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반상과 적서의 차별 철폐를 주장했던 동학사상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혁명적 사상이었다. 동시에 ‘시천주’의 관념이 그대로 현실에 투영됨으로써 현실운동의 형태로써 사상의 실천이 이루어졌다. 후술하겠지만 생태정치학도 동학과 마찬가지로 영성과 현실 정치가 하나를 이룬다. 생태정치학은 생명경외사상을 바탕으로 존재의식의 자각을 중시하는 영성을 강조하면서 생태 패러다임의 실현으로써 정치에로의 직접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연대의식에 기초한 공동체를 확립하고 이를 확장시켜 에코토피아를 구현함

112) 최민자, “수운과 원효의 존재론적 통일사상”, pp.282-283.

113) 김지하, 『생명학2』, pp.212-213.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사상이나 이론은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삶의 장(場)을 위한 것이다. 인간은 육체를 통해서만 영적진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행(行)을 통한 실천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이론과 현실의 통합을 강조하는 생태 패러다임과 수심정기를 통하여 자각적 실천을 강조하는 동학의 사상은 앎을 행(行)으로 옮김으로써 깨달음이 활동의 장에서 살아 숨쉬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IV. 생태정치학적 측면에서 본 리더십

1. 리더십의 변환

세계는 이미 생명, 통합성 중심의 생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리더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가장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조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그 시대의 선각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에 따라 리더의상이 변화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난세에는 독단적이더라도 강인함, 뛰어난 지략, 용맹함을 발휘하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였다. 끊임없는 전쟁과 침략 속에서의 생존은 강인함과 용맹함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훌륭한 리더상이 현대에도 통용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 대다수의 리더십 연구는 훌륭한 리더란 어떤 조건을 갖추

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기술적·도구적인 방법론적 모색이 주류를 이루었다. 당시 연구들이 리더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시각은 공동체와 상생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부·명예·권력의 상징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연구의 초점이 리더십의 외형적 분석에 치우쳤기 때문에 방법론에 있어서도 인간본질의 내면적 문제는 지적하지 못하고 기술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리더를 부, 명예, 권력과 동일시 여기는 인식의 문제이며 인식의 문제는 곧 패러다임의 문제로 귀결된다.

부와 명예를 중시한다는 것은 최고의 부귀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명예욕과 몰욕(物慾)의 상당부분은 삶의 오랜 경험과 시대를 풍미하는 가치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명예욕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의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그 뿌리는 분절적·이원론적 세계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물질만능주의 풍토는 산업혁명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 자체의 속성에 기인하고 이러한 속성은 다시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기인한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이원론에 기초하여 아(我)와 비아(非我)를 구분하고, 주체와 객체, 자연과 인간, 정신과 물질, 생산과 생존을 대립자적 위치에서 파악하였다. 이원론에 입각한 세계관은 나와 대상을 구분하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 물질과 정신을 대립적인 존재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자연은 지배해야 할 대상이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무차별하게 이용하고 파괴해도 좋았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은 하나의 유기체이므로 자연을 파괴한 결과는 당연히 인간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인간이 자행한 환경파괴로 인하여 나타난 이상기후, 생태계 교란의 문제가 도리어 인간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극명한 예이다.¹¹⁴⁾

114) 런던의 스모그는 런던 시민의 삶을 10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2050년에 네덜란드는 물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 또 세계 물위원회(WWC)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절반은 오는 2025년까지 폭풍우를 비롯한 기상이변이 휩쓰는 지역에 살게 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대기 중 CO₂가 바다에 녹아들어 바다생물의 뼈 생성능력을 떨어뜨리는 등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리더십의 문제도 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분절적 패러다임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이원화하는 리더십, 즉 지배자를 ‘이끌어 가는 존재’로 피지배자를 ‘이끌려지는 존재’로 구분한 것은 예견된 결과였다. 수운의 ‘시천주’ 자각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존재의 평등함은 고래로부터 인정되어온 사실이지만, 구 패러다임 하에서 리더십 연구의 상당수는 조직 자체를 하나의 커다란 기계로 설정하고 조직원을 기계에 속한 일종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기계론적 세계관이 이제 한계에 달한 낡은 패러다임인 것처럼 사욕(私慾)을 성취하기 위해 조작과 책동에 의존하는 리더십 또한 더 이상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산업혁명을 통하여 대량생산 체계가 발달하며 생산성 제일주의, 성장 제일주의가 자본주의 논리에 확고한 토대를 형성하였다. 단시간에 빠른 양적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을 극대화시켜야 했고 그 시대가 요하는 것은 이원론에 입각한 리더였다. 그러나 결과는 국가·지역·계층 간 빈부격차 문제, 지배와 복종, 억압과 차별의 대립이었다.¹¹⁵⁾ 단기적인 생산은 증가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파생된 장기적인 문제는 투자비용의 수백 배를 들여서도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되었다. 지략과 책동에 능한 리더가 성장을 극대화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과 물질의 가치전도 현상, 인간소외와 고립의 문제가 발생하였다.¹¹⁶⁾ 단기적으로는 생산력 증대가 조직 성

있다.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6/200406080276.html>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6/200406140063.html>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7/200407160018.html>

115) 국가간의 지배-복종, 억압-차별의 관계는 서구중심주의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18세기 후반 프랑스 계몽철학자들은 문명(civilization)이란 말을 사회적·도덕적·지적 진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 문명은 서구중심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으며 서구문명에 국한된 용어가 되기 시작하였다. 서구는 비서구문명에 대한 지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수단이 되었고 비서구국가들은 서구의 문명기준을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흡수하고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2차대전 후 19세기 ‘문명화’가 ‘근대화’로 전환되면서 서구문명의 핵심요소로서 경제발전(=경제적 근대화)과 민주주의(=정치적 근대화)가 19세기 ‘문명’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강정인, 앞의 책, pp.104-106.

116) 일본에서 우울증 등 이른바 ‘마음의 병’으로 1개월 이상 휴직중인 근로가 4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

장에 도움을 주었지만 성장제일주의의 결과는 부의 극대화와 인간의 낙오였다. 조직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고 탈락하는 것은 결국 조직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조직원이 낙오되는 것이며 조직 구성원의 소멸은 궁극적으로 조직체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전까지는 조직을 훌륭하게 관리하고 이끌어 나감으로써 거대조직의 생존을 도모하는 리더십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대 이후 비로소 서번트 리더십이나 관리의 리더십이 부각되면서 리더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과거의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 그러나 변화에서의 도태는 곧 조직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리더십의 변화는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서번트-리더의 개념은 1970년대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Greenleaf)에 의해 소개되었다. “서번트로서의 리더”라는 그의 논문은 리더십에 대한 혁신적 사고의 출발점이 되었고 센게(Senge)와 블록(Block)같은 영향력 있는 경영이론가들은 그의 논문을 21세기 리더십 이론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꼽고 있다.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은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으로서 스피어스(Spears)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10가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경청하고 ② 공감하며 ③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④ 자신과 타인을 의식하여 깨달으려 노력하여야 한다. 또 ⑤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⑥ 개념화(117)에 최선을 다하며 ⑦ 선견지명으로써 ⑧ 책무(stewardship)를 다함으로써

정됐다고 산케이(産經) 신문은 보도했다. 후생노동성 노동안전위생연구반이 주요 제조업체 등 전국 389개 사업장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분의 3이 “마음의 병으로 1개월 이상 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휴직률은 근로자 300명 미만에서는 0.79%, 300명-1천명 미만은 0.54%, 1천명 이상은 0.37%로 중소기업일수록 높았다. 연구반은 이 결과에 근거해 마음의 병으로 휴직중인 전국의 근로자가 47만명으로 추정되며 임금을 기준으로 한 비용손실은 의료비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1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7/200407040106.html>

117) 서번트 리더십에서의 개념화(conceptualization)에 대해 가톨릭대 경영학부 김석희 교수는 ‘자신의 능력개발을 통해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석희, 앞의 글, p.17.

⑨ 조직 구성원의 성장에 기여하여 ⑩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여야 한다.¹¹⁸⁾

서번트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서빙(serving)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리더는 조직원의 성과와 성장을 도와주는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서번트 리더십의 관점은 기존의 과업달성과 관계유지라는 이원론적 시각을 배격하고 과업과 관계를 하나의 틀 안에서 통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객관적 업무인 물리적 차원의 과업달성과 정신적 차원에서 조직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관계유지를 조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서번트 리더십은 기존 리더십에서의 리더-조직원 관계와 비교한다면 인식적 차원에서 평등함이 강조되었지만 여전히 이성의 측면이 훨씬 부각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물리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의 조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리더십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기존의 리더십 이론들이 한결같이 이성의 측면만을 강조해왔던 것에 반해 현재 발표되고 있는 리더십 이론의 대부분은 인간관계, 정신적인 측면, 감성의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 리더의 역할 중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기존 연구가 지나치게 이성을 강조하는 시각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이성과 정신의 조화를 위해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다.¹¹⁹⁾

이성중심의 리더십은 기능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감성적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비인간적인 과거의 리더십은 오늘날 점점 그 설자리를 잃고 있는 반면, 공감의 분위기를 조

118) Greenleaf K., *On Becoming a Servant Leader* (Sanfransisco: Jossey-Bass, 1996) 참조.

119)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과 의사결정의 95%를 무의식이 결정한다는 인지과학자들의 연구결과가 나왔음을 보도했다. '이성적 동물'이라는 인간이 실은 무의식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에모리대 정신행동과학자 클린턴 킬츠는 "사람이 순간적 판단을 내릴 때는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신경전달물질이 활동한다"며 "이 때는 사실상 이성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판단능력에 대해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프린스턴대 심리학연구팀은 인간이 내리는 선악판단조차도 이성만의 작용이 아닌 감성과 이성의 복합작용이라는 연구결과를 냈다. 연구팀은 특히 사회적·문화적 규범에 대한 판단은 이성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설명했다.

<http://feature.media.daum.net/culture/article01137.shtm>

성할 줄 아는 리더는 오로지 자신이 가진 지위의 힘으로만 조직을 이끌려고 하는 낡은 리더십의 틀을 깨고 있다. 권력이 아닌 인간관계를 조정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우수한 리더가 속속 출현하고 있다. 인간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이란 조직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남다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능력은 이제 리더의 필수요건 중 하나가 되었다. 탁월한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인간 대 인간이라는 맥락에서 다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¹²⁰⁾

경영학 이론에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라는 것이 있다. 이 이론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을 두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하여 도출되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놀랍게도 물리적 환경보다 더 영향을 주는 것이 실험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 정도라는 사실이었다. 경영자들이 조직의 구성원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 높은 생산성을 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 투자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투자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좌우하는 요인의 절반 이상이 그 회사의 리더, 즉 CEO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CEO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원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것인지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¹²¹⁾

이러한 맥락에서 감성의 리더십이 최근 리더십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감성리더십의 주요 논지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리더의 정서적 능력을 감성지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리더의 감성과 행동은 조직원들의 감정과 행동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더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리더의 감정의 과장이 조직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때 리더와 조직원은 곧 ‘공감’을 경험하게 되며 공감은 조직의 불필요한 갈등을 제거하

120) 다니엘 골먼 외 지음, 장석훈 옮김, 『감성의 리더십』 (서울: 청림출판, 2004) 참조.

121)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924&logId=262331>

고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모든 단체가 활동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영적과장의 일치인 공감과 감정의 전이라는 정신적 차원을 강조하는 것은 생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리더십 연구의 이와 같은 흐름은 영성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생태 정치학의 실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감성지능은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관리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지며 각 영역의 역동적인 관계는 이론이 아닌 실천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감성지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먼저 자기인식과 자기관리는 자신을 다스리는 개인적 능력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감정, 능력, 한계, 가치, 목적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인식과 관계관리 능력은 관계를 다스리는 사회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정이입 즉, 다른 사람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¹²²⁾

핵심은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직시하고 깨닫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정신의 문제, 인식의 문제이며 인간 내면의 문제이다. 생태 패러다임은 우주만물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동일한 실재의 다양한 현현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있다. 리더십의 문제도 생명의 유기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2.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의 본질

고래로부터 위정자(爲政者)는 덕성과 지성을 겸비한 자로서 지도자가 이룬 성(聖)은 정치의 형태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표현되었다. ‘왕(王)’이라는 글자는 그 자체로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자’라는 의미를 내

122) 장석훈 참조.

포하고 있다. 지도자란 만물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로서 다스리는 행위는 덕을 펴는 것임과 동시에 수행이었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덕성을 중요시한 고대의 리더십 개념은 오늘 날에도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

리더십에는 크게 행위의 결과 또는 행위를 지배하는 의무와 규칙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에 관한 윤리이론과 덕성이론(virtue-based theories)으로 불리는 리더의 ‘자질’에 관한 윤리이론이 있다. 덕성이론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그 기원은 서구전통의 그리스 시대와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¹²³⁾, 동양의 공자나 맹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대의 정치학은 도덕 및 철학과 통합적으로 연계된 것으로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의 덕성이 강조되어 왔다. 덕(德)을 이루는 것은 모든 인간이 평생 동안 추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이고 특히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는 스스로 덕을 이루어야 진정한 군주가 될 수 있었다.

유가(儒家)는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최고지도자의 도덕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유가는 무엇보다도 최고지도자의 도덕적 수양 및 공동체 구성원의 도덕적 교화를 강조했다. 맹자는 정치지도자를 유덕자(有德者)로 보았으며 중요한 덕목으로 위민성(爲民性), 자임성(自任性), 반기성(反己性), 시중성(時中性)을 꼽았다.¹²⁴⁾ 율곡은 군왕을 ‘천명(天命)의 대행자’로

123) 플라톤 정치철학의 지도이념은 ‘덕(德)은 지식’이라는 것이다. 플라톤에게는 정치권력과 철학이 일치하는 것이 이상국가이며 또한 진리였다. 그는 ‘덕을 지닌 자’인 철인의 정치를 이상정치로 보았는데 교육을 통해 철인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윤리문제에서 출발하여 현실 국가에서 실현 가능한 것을 모색하였다. 그는 플라톤의 정의의 덕에 보다 현실적인 실증주의 덕을 첨가하여 현실정치적 이론을 완성하였다.

124) 위민성이란 정치지도자란 백성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뜻으로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다음으로 귀하며, 군주가 가장 가볍다”고 하였다. 자임성이란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위민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또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맹자는 이 정치적 책임감을 지도자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기성(反求諸己)은 모든 일의 허물을 정치지도자 자신에게서 찾는 정신이다. 시중성은 현실 정치과정에서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정치지도자는 “때에 맞게 행하는 자”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강한 자기 책임감과 보편적 인식이 선행된 위에 정확한 판단력이 수반될 때 가능한 것이다. 안외순, “맹자의 왕도정치론에 나타난 정치리더십론,” 『유교리더십과 한국정치』(서울: 백산서당, 2002), pp.41-47.

보며 리더십의 원천을 입지(立志), 궁리(窮理)·명리(明理), 회덕량(恢德量), 신하를 신뢰하고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 위민(爲民)의 다섯 가지로 보았다.

그러나 덕치교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성리학적 해석에 의하면 백성은 기본적으로 ‘몽매한’ 또는 “본성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다.¹²⁵⁾ 국가와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따라서 리더의 역할은 우월한 입장에서 일방적·권위적으로 구성원들을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안내자요 동반자여야 한다.

생태정치학적 리더란 생태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조직원으로 하여금 존재성을 자각하고 생명공동체로의 연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이끄는 사람이다. 생태 패러다임 안에서 ‘이끄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리더의 가치관과 행동과 영성이 조직원에게 공감의 파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생태정치학적 리더는 인간 개개인이 스스로의 존재성을 깨닫고 자기 효능감을 확산시키며 자아실현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데 한 발 앞선 안내자이자 동반자이다.

생태정치학적 리더는 주관과 객관, 전체성과 객체성, 이성과 신성 등의 이원성을 통합하는 중심에서 있다. 핵심은 리더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자각이다. 생태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위치와 행할 바를 깨닫는 것이다. 우주에 속한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스스로의 존재성을 깨달은 리더만이 조직원을 생명공동체로의 연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리더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각이 일어나야 비로소 조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모두에게 비전을 이해시키고 수용하게 만드는 능력은 리더십의 정수(精髓)이다. 수용은 당사자가 이해하고 공감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인위적인 강제에

125) 박병련, “다산 정약용의 정치리더십론 연구,” 『유교리더십과 한국정치』 (서울: 백산서당, 2002), pp.142-145.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독단적인 리더가 조직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실행될 수는 있으나 수용될 수는 없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결여한 조직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그러나 리더 자신이 먼저 감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조직 속의 개인은 능동적·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천품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이끄는 자’이다.

리더십 연구가 가장 크게 직면하는 문제는 정당성이다. 리더가 역할을 수행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성이 없는 리더의 리더십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강압, 조직, 책동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인위적 조작들은 리더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리므로 다시 정당성을 위협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¹²⁶⁾

정당성이란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정치체제·정치권력·전통 등을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관념을 의미한다. 막스 베버는 “한 사회체제에서의 지배는 그 정당성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¹²⁷⁾고 보았다. 국민들의 자발적 수용과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치적 정당성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원의 동의(同意)와 공공선(公共善)의 추구’를 들 수 있다. 공공(公共)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가장 최선이 되는 방안을 지향하고 모색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성원의 동의와 공공선의 추구¹²⁸⁾를 정당성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정

126) 정당성의 문제는 치자계급은 피치자의 자발적인 복종을 얻기 위한 시도에서, 피치자는 자신들이 ‘왜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정치의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로 군림해 왔다. 이상익, 강정인, “동서양 사상에 있어서 정치적 정당성의 비교,” 『정치사상연구』 Vol.10, No.1, 한국정치사상학회, 2004, p.84.

127) 진덕규, 『현대정치학』 (서울: 학문과 사상사, 2003), p.418.

128) 루소는 공공선의 개념이 사람들에 의해 사회 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될 때 덕성 또한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았다. Yong-Jick Kim, “J.-J. Rousseau’s Concept of Virtue”, 1987, unpublished monograph, p.2.

당성 자체가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동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구성원의 동의와 공공선 추구에 관한 논의는 로크(John Locke)의 통치론에서도 나타난다. 로크는 그의 사회계약론 논의에서 정당한 정부 수립의 절차적 조건으로 피치자의 동의를 얻고 공공선을 추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선을 증대한 면에서 위반하거나 침해할 때에는 인민이 그러한 통치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인민에게 저항권이 발생한다. 이처럼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에서 공공선의 추구하고 구성원의 동의는 상호 긴밀하게 의존하고 있다.¹²⁹⁾

기존 리더십 연구가 지속되지 못한 까닭은 이원론에 입각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조직의 제도적 기반에만 집중한 결과 정신적·도덕적 기반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정신적 공감과 도덕적 지지기반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는 존재의식을 자각한 개인이 자율성, 평등성에 기초하여 조직의 유기성과 효율성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될 때 소멸된다.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이나 동학의 리더십은 근원성·포괄성·보편성을 바탕으로 능력과 도덕적 자질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 체계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해서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로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¹³⁰⁾

정치가 이루어지고 리더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있어야 한다. 개인이 존재해야 공동체가 생겨나고 공동체가 존재해야만 그것으로부터 정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치에서 리더의 정당성은 국민 각자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서 선출과정에서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129) 이상익, 강정인, 앞의 글, pp.84.

130) 오늘날 동학 리더십론의 재조명의 필요성은 대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세계자본주의 네트워크가 생태학적으로나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둘째, 인간의 자기실현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생물학적·인지적·사회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세계화의 도덕적 기반 상실에 따른 지구공동체의 구심력이 약화되었다. 최민자, “동학의 정치철학적 원형과 리더십론,” 『동학학보』 Vol.9, 동학학회, 2005 참조.

되어야 한다.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더 자신의 도덕성과 투명한 경영에서 비롯된 공동체 자체의 견고한 신뢰가 필요하다. 정당성 획득에서 유지까지의 과정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핵심 요인은 바로 리더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다.

리더가 선출되고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리더의 존재기반은 공동체 구성원에 있으며 리더가 지향해야 할 바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다. 궁극적으로 리더는 구성원 모두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봉사에 힘쓰는 자여야 하며 그들 스스로 존재성을 자각하고 자기 효능감을 느낌으로써 공동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나아가 확립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연대의식을 공고화함으로써 에코토피아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리더의 몫이다. 진정한 리더는 자기 자신이 먼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바인 ‘도(道)’¹³¹⁾에 대해 깨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나 하지 않음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엘리트주의 관리방식 즉, 인위적인 조작과 통제로 조직원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가 감화를 얻고 함께 깨닫는 것이다.

‘리더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현실의 흐름을 정확히 포착해야 한다’는 말은 수많은 리더십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현실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없는 이론은 허울 좋은 문자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 공론(空論)에 그치지 않고 현실 안에서 진정으로 영향을 발휘하길 바란다면, 리더는 미래의 전망과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는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과 그것을 공유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 리더는 말 그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포착하여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 가시화되는 것은 조직원이 미래의 상(像)을 공유

131)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道)’는 역동적 개념이다. 세상은 개별적이고 독립적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동, 파장의 개념인 ‘양자장’이 그 실체다. 이때의 파동 또는 파장이 바로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도(道)’이다. Fritjof Capra, *The Tao of Physics* (Boston: Shambhala, 2000) 참조

한 연후에만 가능하다. 솔직하게 전망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곧 이를 통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벽들을 제도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결국 인위(人爲)가 아닌 무위(無爲), 곧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감의 문제는 관계성에서 비롯된다. 리더란 서로 얽혀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의 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리더의 역할¹³²⁾은 리더가 조직원에게 미치는 일방적인 영향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긍정적 커뮤니케이션과 공감 속에서 발휘될 수 있다. 리더의 감성과 행동은 조직원들의 감정과 행동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리더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태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인식과 그에 입각한 상호 신뢰와 믿음이다. 인간 조직은 하나의 생명체이므로 리더십에 있어서도 생태학적 패러다임이 적용된다. 카프라의 표현을 빌리면 살아있는 사회 시스템은 자기생성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이다. 효과적으로 개인의 발현능력을 자극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체의 리더는 생명과정의 단계를 인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다면 신뢰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리더와 조직원 간의 견고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조직의 비전을 체득하고 자기 것으로 삼아 자발적으로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신의 효능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132) 스투어트 웰스는 리더십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전략을 수립하는 현인의 역할, 미래를 혁신하는 비전가의 역할, 변화를 주도하는 마술사의 역할, 문화적 차이를 연결하는 글로벌 리스트의 역할, 발전을 유도하는 멘토의 역할,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동맹자의 역할, 결단력의 소유자 주권자의 역할, 목표달성에 주력하는 안내자의 역할, 최고를 추구하는 장인의 역할. 스투어트 웰스 지음, 김기홍 옮김, 『세상을 지배하는 리더의 9가지 유형』(서울: 이지북, 2003) 참조.

생태정치학적 리더는 가장 먼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혼원일기로 이루어진 모든 생명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자각해야 하며 자각이 이루어지면 상생을 향한 의지와 목적이 생겨나게 된다. 상생의 원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관계에 대해 깨닫는 것이고, 관계를 깨닫는다는 것은 통합적이고 유연한 사고, 즉 생태 패러다임에 입각한 시스템적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전일성과 통합성을 바탕으로 평등성이 도출된다. 인간, 자연을 포함한 우주만물은 각자의 내면에 고유한 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질적·근원적으로 평등하다. 따라서 생태 패러다임에 입각한 리더는 존재의 본질적 평등성을 깨달아야 하며 자신을 비롯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동일하게 평등함을 안다면 진정한 의미의 이끄는 자이자 안내자요 동반자가 될 것이다.

리더의 의식이 공동체 안에서 발현되려면 공동체 구성원의 자각이 일어나야 한다. 공동체란 리더와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리더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존재성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조직원들에게 최고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전일성, 통합성, 평등성이 생태정치학적 리더의 인식론적 측면이라면 자각성, 자율성은 보다 실천적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전제가 이루어지면 자기 효능감의 확산과 더불어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리더십이 가능해질 것이다.

리더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 리더 역시 인간이기에 매순간 위협에 처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충만한 의식으로 대담하게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다. 이것은 리더의 내면이 개아(個我)를 초월하여 내적 조화와 평상심을 유지할 때 가능한 일이다. 외부환경에 순응한다는 것은 완전히 나를 잃고 휩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잊되 나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의 특징

1) 전일성

분절지(分節智)가 작용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선천시대의 특성이라면, 근본지(根本智)에 입각한 생태 패러다임이 후천시대의 기본 방향이다. 생태 패러다임은 통합적이고 포괄적 의미의 세계관으로서 전일성을 바탕으로 한 동학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수운의 ‘시천주(侍天主)’ 논의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혼원일기¹³³⁾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각 내면에 고유한 신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영성을 지닌 개개의 존재는 모두 평등하며 존재의 평등성을 마음으로부터 자각하게 되면 개인주의는 공동체 의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생태 패러다임에서 ‘나와 너’는 이미 하나이고 이것이 곧 전일성(全一性)이다. 생태 패러다임에서 말하는 전일적 실재관은 말 그대로 자연과 인간, 객체와 주체, 부분과 전체 모두가 하나¹³⁴⁾로 통합되는 것이다. 모두 하나라는 의미에서 전일(全一)이고, 정태적 관념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현실이라는 의미에서 실재(實在)이다.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에서의 전일성은 핵심가치인 ‘생명’을 바탕으로 상생과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태정치학적 리더는 미시적으로는 조직원과 리더의 평등, 거시적으로는 인간과 자연 모두의 조화와 평등을 추구한다. 전일성으로부터 평등성이 나오고 평등에서 관계와 상생의 중요성이 비롯된다. 모든 존재가 하나로 동일하다는 것은 곧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태정치학적 리더는 ‘하나’로서의 ‘생명’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모든

133) 『天道教經典』, 『講論經義』, p.693 : “...靈與氣 本非兩端 都是一氣也.”

134) 데카르트적 주객 이원론에 기초한 고전 물리학의 객관성은 정의상 주관성을 배제한다. 고전 물리학은 ‘분리 가능성의 원리’(principle of separability)를 전제한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에 의한 혁명은 고전 물리학에 전제되어 있던 ‘분리 가능성의 원리’를 폐기하도록 한다. 이것은 관찰을 위해서는 관찰과 관련된 두 물리적 체계들이 분리될 수 없는 전체로 통일되는 방식 속에서 대상이 관찰체계와 상호 작용해야 함을 뜻한다. 통일된 전체 속에서 비로소 대상이 모호하지 않게 구분된다. 보어는 전체로의 통일 속에서 대상이 모호하지 않게 구분되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전체론적인 객관성이라고 표현한다면, 고전 물리학의 이원론적 객관성과 다른 것이다. 한면희, 앞의 책, pp.237-238.

존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상생(相生)과 그 안에서의 관계성을 중히 여긴다. 상생이라는 단어는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지만 그 진의(眞義)가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상생은 단순히 ‘함께 삶’을 의미할 뿐 아니라 선천에서 후천으로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전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은 후천시대의 특성이다.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상생의 덕목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다. 생명에 대한 무차별한 평등사상은 동서고금, 종교를 막론하고 고래로부터 일관되게 존재해온 진리이다. 만물은 상호 유기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 존중과 경외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의미는 가시권에서 비가시권에 이르는 존재들까지 두루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이다. 유기성과 상호보완성을 인식한다면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곧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 존재의 스펙트럼이 더욱 확장되면 나를 존중하는 것이 곧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

기계론적 세계관과 분절지가 작용하는 자본주의 세계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산업혁명 이후 최근까지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가능한 한 대형공장을 건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경비용은 무시되었고 천연자원은 남용되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는 당장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시되었지만 결과는 기후의 변화, 동식물의 변종, 각종 전염병, 물과 공기의 오염 등 인간 생존 자체의 위협으로 나타났다. 즉 인간 삶의 지속가능성¹³⁵⁾이 불투명해 진 것이다.

135)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물, 심지어 무생물과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수종, “생태적 패러다임에 따른 현행 환경 교과서 평가,” 『환경과 생명』 Vol.31, 환경과 생명사, 2002, p.140;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기업, 타 정부 부서들과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이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과 타 정책과의 통합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문태훈, “외국의 녹색 정부 사례와 시사점,” 『환경과 생명』 Vol.32, 환경과 생명사, 2002, pp.103-104.

지속가능한 인간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원리 즉, 생명을 지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6가지 생태원리가 있다. 네트워크, 순환, 태양에너지, 파트너십, 다양성, 그리고 역동적 균형이다. 결국 인간의 생존은 우리가 생태계를 읽어내는 능력, 즉 생태계의 기본원리를 이해해서 삶에 적용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생태읽기’는 정치인과 기업계 지도자, 그리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에게 필수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¹³⁶⁾

여기서 생태란 자연환경이나 생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생태를 읽는다는 자연의 메커니즘을 읽는다는 의미와 더불어 인간조직 자체에 감춰진 본연의 변화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¹³⁷⁾ 조직변화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모든 생명계에 감춰진 본연의 변화과정을 이해해야만 한다. 특히 리더가 변화의 흐름과 과정을 이해해야만 조직의 변화과정을 설계하고 생명체의 적응성과 다양성, 창조성을 반영한 새로운 조직을 창조해낼 수 있다. 인간조직을 생명체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주어진 가장 화급한 과제의 하나이다.¹³⁸⁾ 생명에 대한 경외감으로 충만한 정신만이 인류와 생명체 전체에 대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아직까지 분절지가 작용하는 근대론에 입각하여 필연적으로 사회 전반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나에만 초점을 맞추어 자연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써 사용하였다. 생명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모습으로서 기계론적·분절적 세계관이 지배

136) 프리츠프 카프라 지음, 강주현 옮김, 『히든 커넥션』(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pp.307-308.

137) 1980년대에 아리에 드 게우스(Arie de Geus)는 흥미로운 관점에서 기업조직의 성격을 분석하며 기업의 수명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100년 이상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건재한 역사를 지닌 대기업이었다. 장수한 2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환경변화에 적응한 장수기업은 모두가 살아있는 유기체의 특징을 보인다’는 중요한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조직을 살아있는 존재로 파악한다는 것은 조직이 스스로 쇠신할 수 있고 스스로 변해서 진화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뜻이다.

138) 강주현 옮김, 앞의 책, pp.141-142.

하는 선천시대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했던 행위의 결과가 ‘나도 잘될 수 없다’는 인식의 변화로 나타났다.

군림하던 리더가 관리자로 변하고 관리의 리더십에서 서번트 리더십으로의 일련의 변화들은 모두 전일성을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다. 리더의 독단과 독주 아래 조직원을 일종의 기계 부속품처럼 여겼던 권위적인 리더십은 한계를 드러냈다. 개인주의의 특징처럼 리더의 독주만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깨닫고 함께 잘 살 길을 모색하는 공동체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기본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실세계에서 부딪히는 한계가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된 비정부기구 등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 되었고¹³⁹⁾ 힘의 근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탈근대의 생태 패러다임 안에서 지구촌 한마당을 형성하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위력은 한층 더해지고 있다. 가장 거시적이고 핵심적인 관계는 생명경외사상에 입각하여 우주자연-인간-문명이 상생의 삶을 구현하며 이루는 조화로운 관계이다. 이것이 곧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이요 추구해야 할 삶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리더가 인식해야 할 관계의 핵심은 세상 만물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 속에 있으며 전체와 부분은 하나라는 사실이다. 즉 만물은 우주 전체와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부분들로서 동일한 궁극적 실재의 다양한 현현¹⁴⁰⁾인 것이다.

리더란 여러 조직원들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조직의 구성원들은 거대한 기업이나 소규모의 조직 내에 속해 있다. 또한 이 조직은 사회의 한 부분이요 사회는 국가에, 일개의 국가는 세계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세계와

139) 1970년대 이후 교통·통신 혁명의 진전에 따라 전개된 정보화·지구화를 통해 종래 시공간적 한계에 부딪혀 억제되었던 사람들 간의 교류가 국경을 넘어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시공간의 압축 또는 재조정은 국경을 초월한 ‘지구적 의식’(global consciousness)의 출현과 형성을 과거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강정인, 앞의 책, p.495.

140) 『天道教經典』, 「無體法經」, p.437: “性 闢則 爲萬理萬事之原素 性 開則 爲萬理萬事之良鏡.”

리더와의 관계만을 보아도 이와 같고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질 간의 모든 관계의 연결망 속에 '나'라는 고유한 존재가 하나의 부분인 동시에 전체로서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존재를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적 사고는 개별적인 객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고유성을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본래의 의미를 갖는다.

21세기의 지도자는 총명한 개인이 강력한 견인력으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인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과거의 유형이 아니라 조직의 네트워크 안에서 힘을 발휘해야 하는 유형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 이후 훌륭한 리더의 필수조건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관계 중시형' 리더이다. 그만큼 네트워크와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리더의 역할 중 특히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상호연결성,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조직들은 최고의 능력을 통해 물질적 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하였기 때문에 이윤추구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것은 배제하고 단지 목표에만 매진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사람과 사람의 정신적·감정적인 유대요 공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성과 논리의 추구에서 감성과 직관으로, 물질적 가치에서 정신적 가치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고 전략은 그 다음이다.

기술과 사회의 발달로 관계의 다층적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인간적 관계망의 중요성은 더욱더 증대된다. 복잡하고 치밀한 조직 안에서 개인의 활동영역은 상대적으로 넓고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확고한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간극에서 조직체계로부터의 이탈이나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정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이 조직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그 속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고 유연하게 존재할 수 있는 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적·정서적 측면의 유

대가 중요하다. 강압적·고압적 리더가 이끄는 경직된 조직에서 개인은 튕겨져 나가거나 꺾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바탕으로 유연하지만 확고히 결집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면 견고한 동시에 유연한 조직체계를 이룰 수 있다.

베이트슨은 생명의 핵심을 관계에서 찾고 그 관계의 그물을 짜는 것이 마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연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음은 생명의 본질”이다.¹⁴¹⁾ 동양사상은 관계망의 범위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확장하여 인간, 자연과 같은 가시적 관계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 영성으로 연결된 비가시적인 부분까지 두루 관계망에 포함시킨다.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것은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동학사상에서 불연기연의 논리를 통하여 수운이 말하고자 하는 것 또한 연결된 정체성, 공동체성이다. 다른 개체들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연관을 형성하는 그물, “그 네트워크가 인간의 사회적·생활적 연관일 뿐만 아니라 상호 영성적 의사소통의 중층적인 연관”이다.¹⁴²⁾

관계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연관을 형성하는 그물이라 하였다. 따라서 리더의 동기는 순수해야 한다. 이기적인 사욕을 채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한결 같이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내면의 열정이 있어야 이것이 관계의 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자연스레 전달된다. 관계란 상생을 바탕으로 한 모든 존재 자체의 평등한 위치를 의미한다. 생태정치학적 리더는 조직의 구성원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리더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더불어 상생하는 방법을 강구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이다. 커다란 ‘하나’ 안에 공동의 연대로서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다. 각자는 나를 잊되 나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141) Fritjof Capra, *Uncommon Wisdom* (New York: Simon & Schuster, 1998), p.88.

142) 김지하, 『생명학2』, p.169.

2) 통합성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의 특징으로서 통합성은 전일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세계관과 통합적인 가운데 개체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있는 유기성¹⁴³⁾을 포함한다. 개체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유롭게 상호소통이 가능한 유기성은 개방성과 유연성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생태정치학적 리더가 통합성과 유기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의미는 생태 패러다임을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여 현실 안에서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개체성이 존중되면서 전체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생태 패러다임의 핵심이며, 리더십은 생태 패러다임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의 통합성과 유기성이 의미하는 바이다. 통합성과 더불어 유기성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가 단단하고 경직된 거대한 덩어리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개체가 고유성을 간직하는 동시에 유기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하면 시스템적 사고 및 세계관에 근접한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이래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일종의 환원주의적 사고였다. 뉴턴 물리학의 기본이었던 이 기계론적 접근으로 홉스적 정책(Hobbesian policies)과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는 성공했다. 그러나 21세기의 지도자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개인 홀로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과거의 유형이 아니라 조직의 네트워크

143) 데이비드 보hm(David Bohm)은 양자 물리학의 통찰을 토대로 패러다임의 지평을 넓힌다. “관찰하는 도구와 ‘관찰되는 대상’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관찰하는 도구가 관찰되는 대상과 분리되지 않은, 나누어지지 않은 전체에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처럼 자연에 대한 접근이 ‘나누어지지 않은 전체’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세계를 그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통합체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David Bohm, *Wholeness and the Implicate Order* (London: RKP, 1980), p.134; 카프라는 “양자론이 우주가 본질적으로 내적 결속을 이루고 있음을 드러낸다고”고 하면서, “우리에게 우주를 물리적 대상들의 집합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전체의 여러 부분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들의 복합망으로 보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Fritjof Capra, *The Tao of Physics*, Boston: Shambhala, 2000, pp.137-138.

크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유형으로 바뀌었다. 특히 리더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거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균형을 이루고 통솔해 나가려면 민첩성과 시스템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¹⁴⁴⁾

생명계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다. 생명계를 자기생성 네트워크라 정의하는 것은 생명현상을 시스템 자체의 속성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풀이하면 모든 생명은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생명이라는 특징은 생태 패러다임 자체의 특징, 즉 모든 존재의 핵심가치라는 의미이다. 사람들은 시스템적 생명관을 통하여 정신과 의식은 개체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¹⁴⁵⁾ 즉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성장·분열·변화하며 발전과 진화로 나아가는 여정의 한가운데, 그곳에 정신과 의식도 함께 한다.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리더는 발생한 문제와 전체 사건, 데이터 사이의 연관성을 볼 수 있으며 각각의 부분에 치우치지 보다는 부분과 전체의 조화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계급사회에서 사람의 직위에 따라 경직된 틀로 고착되었던 상호관계와는 달리 활동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즉 권력중심의 완고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한 힘의 정치가 아니라 각 조직들이 자유롭게 살아 숨쉴 수 있는 생태정치를 통해 리더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봄으로써 완전한 하나를 조망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조직의 창의성과 학습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리더는 조직의 공식적 구조와 자기생성적 성격을 띤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공식적인 구조는 구성원과 업무 간의 관계를 규정짓고 힘의 분배를 결정짓는 일련의 규칙과 법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교하게 짜여진 하부시스템과 규정

144) Michael J. Marquardt, Nancy O. Berger 지음, 양동훈 옮김, 『21세기의 글로벌 리더십』 (서울: 신론사, 2003), pp.47-49.

145) 생물학에서 정신에 대한 이런 새로운 해석은, ‘정신의 과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그레고리 베이트슨 (Gregory Bateson), 그리고 ‘삶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인지에 초점을 맞춘 움베르토 마투라나에 의해 1960년대에 발달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마투라나와 프란시코 바렐라가 마투라나의 초기 작업을 완전한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에 의해 구분된다. 이와 달리 비공식적 구조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유동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이다. 유동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공유된 목표를 향한 상호 연대성이라는 비언어적 형태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연대성을 통해 기술이 교환되고 지식의 공유가 암묵적으로 진행”된다.¹⁴⁶⁾

통합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전체의 커다란 덩어리로서만 조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사고와 미시적 사고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조화가 바로 유기성이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유연한 시각을 가짐으로써 상황에 따라 가장 적실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통합적 사고이며 시스템적 사고이다.

따라서 리더는 구성원들이 조직 전체를 조망하는 동시에 그 밑에 흐르는 문화, 영향력, 잠재적 문제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리더십에 있어 가장 강조되는 비전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리더는 외부로부터의 비전과 내부로부터의 비전을 통합함으로써 조직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거시적 틀을 세우는 동시에 개인수준의 비전을 갖도록 세부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인 과정으로 실행해야 한다. 비전설정 뿐 아니라 조직원의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훈련을 통하여 조직원을 단순한 기능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직목표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심어준 후 비전의 실행과 공유라는 맥락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조직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직의 각 부분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 통합적 체계로서의 과정이다.

통합성 안에 포함된 특징으로 유기성 외에 개방성과 유연성의 측면을 살펴보자. 1980년대 아리에 드 게우스(Arie de Geus)의 27개 장수기업 분석결과를 보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장수한 대기업의 특징은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성이었다. 개방성을 갖춘 리더의 특징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람에 대한 포용

146) 강주현 옮김, 앞의 책, p.153.

력, 요컨대 새로운 환경을 배우며 적응하는 명백한 능력에 있었다. 새로운 질서는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집단의 창의성의 결과로 생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무엇보다 조직 내에 일정한 수준의 개방성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¹⁴⁷⁾

모든 생명계는 조직적으로는 경계 내에서 닫힌 구조이지만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에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구조이다.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생명으로 충만한 살아있는 조직은 그 자체의 틀에서는 닫힌 구조이지만 외부 환경과의 교류, 직원들의 내부 움직임, 지위고하를 막론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체계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구조이다. 개방성과 연결되는 특성은 솔직함과 유연성이다. 훌륭한 리더는 조직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변화의 어떤 면이 확실하고 또 어떤 면이 여전히 불확실한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을지라도 변화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리더가 열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리더의 열정에 감염될 여지는 커진다.¹⁴⁸⁾ 경직된 직위체제계의 리더는 최고경영자 증후군에 빠질 위험이 다분하다. 최고경영자 증후군이란 뚜렷한 수직적 위계질서 하에서 상명하달식 운영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리더가 갖게 되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리더는 조직의 분위기와 업무에 관련된 올바른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 직원들은 바른 소리를 했을 경우 오히려 받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리더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행동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을 반복함으로써 조직의 사기는 떨어지고 경직되고 침체된 분위기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리더가 자신의 열의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며 어떠한 정보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 감정의 파장이 조직 전체

147) 위의 책, pp.162-163.

148) 장석훈 옮김, 앞의 책, p.34.

로 확산되는 일종의 ‘트리클다운 효과(trickle-down effect)’를 가져올 것이다. 리더가 열린 마음을 갖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조직원들도 자연스럽게 개방적인 자세를 갖게 되고 능동적·자율적으로 조직의 일에 투신하게 되는 것이다.

개방적인 조직은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된다. 리더와 조직원은 미래의 전망과 조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공유는 개방성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다. 리더는 말 그대로 조직을 리드(lead)하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포착할 뿐 그 실행은 비전이 공유된 이후에만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솔직하게 전망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벽들을 제거할 수 있다.

여기서 리더십의 유연성이 나타난다. 최고의 리더란 종합적인 한 가지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원칙을 갖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자신이 선택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옮겨갈 수 있는 순발력과 유연성도 필요하다. 유연성을 갖춘 리더는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요구를 처리하는데 더 폭넓게 대처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 평등성

평등의 문제는 리더십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리더와 조직원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비단 리더십의 문제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아도 평등은 일체의 차별을 타파하고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핵심 테제로 등장하여 왔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이미 실현되고 공고화 과정에 있는 국가에서도 불평등의 문제¹⁴⁹⁾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은

149) 지구 전체적으로도 불평등은 더 확대되었다.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는 연간 10조 달러씩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지만 지구상에 있는 358명의 초특급 부자들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지구촌 인

평등에 대한 기존인식 자체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귀족 지위에 따른 신분차별이 대부분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평등이 매우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표피적인 해석이다. 평등의 개념이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평등의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생태정치학에서 평등이란 신분,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 문화적 수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체의 근원적이고도 영적인 평등을 의미한다.

서구 자유주의에서 평등은 지배와 복종의 철저한 이원화 구조 속에서 나온 개념이다. 평등이 대두되었던 시기의 고착된 신분질서는 지배와 복종이라는 통치구조에서 비롯되었고 철저히 이원화된 통치구조는 그 당시를 지배하던 기계론적·분절적 세계관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평등의 개념은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고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자연권 사상, 천부인권설 등은 모두 권리의 평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생태정치학에서의 평등은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객체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근원적·본질적·영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운은 ‘시천주(侍天主)’논의를 통하여 혼원일기에서 시작된 만물은 영성을 지닌 존재 그 자체로서 모두 평등하다고 하였다. 동학의 평등사상은 지배층의 통치정당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조선시대의 형식적·외면적 정치구조 속에서 일체의 신분 차별을 철폐하고 누구나 평등¹⁵⁰⁾하다는 만인

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5억 명의 전 재산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자원의 30%를 소비하고 지구 온실 가스의 25%를 배출하고 있다. 한편, 30억 명의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시고 있으며, 11억 명은 그나마 안전하게 마실 물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매일 1만4천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것은 9·11테러와 같은 비극이 제3세계에서 매일 되풀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공간 환경학회 생태환경분과 한국도시연구소 환경연구부, “세계화의 그늘, 빈곤과 환경과괴,” 『환경과 생명』 Vol.32, 2002, p.118.

150) 『龍潭遺詞』, 「夢中老少問答歌」: “우습다 저 사람은 地閻이 무엇이게 君子를 비유하며 文筆이 무엇

의 평등을 주장함으로써 현실 개혁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었다.

모든 존재는 그 내면에 신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 나아가 인간과 자연,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까지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동학의 사상이다. 그 결과는 일체의 차별 철폐로 인한 모든 인간의 평등이다. 이러한 까닭에 동학사상은 민중사상이기도 하다.

생태정치학의 평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모든 존재는 내면에 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고유하고 존귀하다. 따라서 서구의 평등개념은 인간 대 인간의 범위 안에서 지배와 복종의 이원화된 구조를 토대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통합하려는 시도로서 평등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생태정치학적 평등은 만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보다 본질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평등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존재 자체에 대한 평등을 깨닫게 되면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 문화적 수준 등에 따른 차별의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의 평등성을 마음으로부터 자각하게 되면 개인주의는 공동체 의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생태 패러다임에서 ‘나와 너’는 이미 하나이다.

근대 서구의 리더십론은 이원론이라는 구조 자체의 문제로 인해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구조 속에서 리더십론은 리더는 지배하고 여타의 사람들은 복종한다는 단순한 원리에 입각한다. 따라서 권위적인 리더가 일방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생태정치학적 리더십론은 본질적·영적인 평등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리더와 조직원 모두를 동일하게 존귀하고 평등한 인간으로 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리더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리드(lead)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불평등이 만연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없는 까닭은 리더의 도덕성에서 크게 기인한다.

물질적 부의 달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오히려 도덕성과 윤리에 대한 관심이
이게 道德을 의논하노.”

심이 새롭게 재부상하게 되었다. 조직의 발전이 안정궤도에 진입하고 나니 그간 노정되어 있었던 지도자의 부정부패 문제나 공직자의 뇌물수수 관련문제 등 끊이지 않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 각층에서 도덕성과 윤리의식 회복에 중점을 두고 투명한 조직의 경영과 관리, 투명한 인사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등 투명성이라는 부제를 내걸고 조직 또는 리더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강조하였다.

로버트 달(Robert Dahl)은 통치자의 자격 요건으로 윤리적 능력(moral competence), 기술적·수단적 능력(technical or instrumental competence)을 들고 있다.¹⁵¹⁾ 기술적 능력과 도구적 능력이 윤리성을 중심으로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통치자의 자격 요건으로 이성적 능력과 감성적 능력, 현장에서의 뛰어난 기술과 판단력, 타협하지 않는 윤리의식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번스(James M. Burns)는 도덕적인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지도자와 피지도자 간에는 권력관계뿐만 아니라 상호 필요(needs), 열망(aspirations), 가치(values) 등에 있어서 관계를 가져야 한다. ② 피지도자는 지도자에게 반응하는 데 있어서 대체지도자와 프로그램에 관한 적당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대체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지도자는 피지도자와의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번스는 도덕적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리더와 조직원은 권력뿐 아니라 상호의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 대해 공감을 이루고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리더에게 약속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리더십이 상호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해석을 통해 본다면 번스는 리더와 조직원간의 관계, 신뢰의 문제를 도덕적 리더십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관계와 신뢰는 생태리더십의 기본이요 핵심적인 요소이다.

151) 이준형, 앞의 책, p.194.

도덕적 리더십을 강조함으로써 범할 수 있는 우(愚)는 도덕성이라는 요소를 리더십의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것이다. 도덕성 자체보다는 기업이나 조직 또는 리더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수운의 『도덕가(道德歌)』에 보면 “글재주에 도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찾는 것이 도덕군자”¹⁵²⁾라는 비판을 볼 수 있다. 목적과 수단의 진도를 혹평한 것이다. 단순히 더 많은 이윤의 창출과 이미지 쇄신을 목적으로 투명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리더와 조직원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심을 다하며 더불어 배우는 자세로 임한다면 투명한 경영과 관리는 자연스런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도덕적·윤리적인 자세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도덕의 본질은 “생명을 파괴하고 저해하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여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충동에서 비롯된 것”¹⁵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각 조직원들의 내면의 문제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조직 구성원 모두가 존재의식을 깨달아 자기 효능감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리더의 몫이다.

가렌(Galen)과 웨스트(est)는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정신적 측면의 충실이 중요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것이 실제로 이윤추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던 길에 접어들어 기업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기 시작했다.¹⁵⁴⁾ 실제로 각 조직에서 현장에서의 필요성에 의해 도덕적·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⁵⁵⁾ 실질적인 필요와 실험적인 결과를 통하여 도덕성과 윤리성·정신적인 측

152) 『龍潭遺詞』, 「道德歌」

153) 알버트 슈바이처 지음, 김석목 옮김, 『문화와 윤리』 (서울: 경지사, 1965) 참조.

154) 양동훈 옮김, 앞의 책, pp.49-50.

155) ‘윤리현장’이 있는 기업은 경영성과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1년 자산 5,000억원 이상의 회원사 및 상장사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윤리와 기업 성과 간의 관계조

면의 중요성은 이미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그러한 관심의 전환과 흐름이 거대한 생태 패러다임의 한 조류라는 것, 거시적 틀의 변화라는 것을 염두하고 생활 안에서 직접 실천할 때이다.

결국 리더 자신이 먼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면의 품성을 갖춘 연후에야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덕성이나 도덕적 능력은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 획득되고 교육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덕성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일치하게 도덕적 가치의 개발과 훈련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더와 조직원의 감성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조직의 감성지능은 폭넓고 깊이 있게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발휘되어야 하며, 진실하고 투명하고 성실할 뿐 아니라 감정이입까지도 가능한 건전한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규범과 문화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리더가 진실하고 겸허한 자세를 보여줌과 동시에 조직의 감성적 현실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도덕적이고 진실한 자세로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감성지능을 갖춘 리더십을 이끌어낼 여건을 만들고 감성지능 리더십을 갖춘 리더들이 실상을 정확히 바라보게 만들면 조직은 변할 수밖에 없다.

덕(德)과 정의를 겸비한 리더는 만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따르지 않으며 인위적으로 계획하여 억지로 상황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동양에서 말하는 도(道), 수운이 말하는 후천시대와 동일한 맥락이다. 장자는 세상에 유용(有

사결과에 의하면 기업윤리를 만들어 실천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경영성과가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의 차이도 7.71%대 5.54%이다. 미국도 2001년 초 포춘지가 실시한 조사에서 존경받는 10대 기업들의 1995-2000년의 평균 주가상승률이 41.4%로 같은 기간 동안 S&P 500대 기업이 거둔 주가상승률 16.5%를 크게 앞섰다. 동아일보, 2001년 12월 16일자 기사.

用)과 무용(無用)의 구별은 없고 상하관계 등도 결국에는 하나의 근원적 ‘도(道)’로 회귀한다고 말하며, 그 기본요건으로 ‘무욕(無慾)’을 강조하였다. 모든 만물이 본질적으로 평등함을 깨닫고 무욕의 자세를 갖춘 리더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래 지향하고자 했던 조직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4) 자각성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의 네 번째 특징은 자각성이다. 상술한 전일성, 통합성, 평등성은 생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리더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인식차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품고 있는 의도는 행동을 통해 표출되어야만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더십 연구는 현실 안에서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학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행동을 통해서만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식차원의 전일성, 통합성, 평등성이 현실 안에서 구현되려면 반드시 리더의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혼원일기로 이루어진 만물의 전일성, 부분과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통합성, 모든 존재의 본질적·영적인 평등성에 대해 리더 스스로 내면에서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 자각하여야만 인식의 변화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자각은 실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정치학적 리더는 타인을 리드(lead)하기에 앞서서 먼저 스스로 자각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리더십 연구는 이론 정립을 위한 학문적 논의의 주제로서 이용되기도 하지만 핵심 목적은 현실 상황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을 모색하고 그 발전을 토대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통시적 연구이지만 그 실행은 현재, 바로 지금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리더십 연구와 ‘현실의 장(場)’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며 그 논의에 행(行)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듯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축적해 놓은 이론들은 실제 현실의 장에서 행(行)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제 빛을 발할 수 없다. 리더가 자신의 깨달음을 현장에서 솔선수범 하여 제 몸으로 실천할 때 이를 지켜보는 조직원들은 백 마디의 말보다 깊은 감화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

동학사상과 생태정치학의 공통점 중 하나가 이론과 현실의 통합에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론과 현실의 통합이란 얽이 단순히 관념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장에서 행동을 통하여 실천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행(行)’의 필요와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수운만이 아니다. 원효도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을 통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¹⁵⁶⁾한 바 있다. 원효의 일심이문(一心異問)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전개는 궁극에는 믿음을 일으켜 실천적 행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원효는 믿음을 일으킨 다음에는 반드시 수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여 실천적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¹⁵⁷⁾

더욱 많은 이들이 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여건과 뜻을 펼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태 패러다임에 입각한 리더이다. 사회 전반에서 리더가 직접 발로 뛰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만큼 리더의 실천이 중요하고 이제는 중요성이 깨달아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실천하는 리더십이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요식행위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 즉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인내력 있게 꾸준히 실천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리더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열린 마음과 개인 의식,

156) 『금강삼매경론』은 지행과 관행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인간이 본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행위를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봄과 동시에 사심 없는 행위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157) 최민자, "수운과 원효의 존재론적 통일사상", pp.299-300.

얼음과 같은 냉철함과 불과 같은 열정으로, 때로는 누운 풀과 같은 겸손함으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실천하는 리더십은 리더 자신이 비전에 대한 확신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을 때 이룰 수 있다. 혁신이라는 것은 일종의 환골탈태(換骨奪胎)로 편안하고 익숙하던 기존의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려면 확신과 최선을 다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또한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⁵⁸⁾ 확신에 찬 리더가 직접 움직이게 되면 감정의 파장이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어 자연스럽게 공동체 행위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실천하는 리더십에는 칭찬과 격려와 지지가 중요하다. 성과급 등의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와 말로 하는 칭찬 모두는 일종의 피그말리온 효과¹⁵⁹⁾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조직 자체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칭찬과 격려 역시 조직의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을 할 때에만 그 감정의 파장이 조직 전체에 전달되어 긍정적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얇은 행동을 통하여 실천으로 연결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듯이 칭찬하고 사랑하는 마음 역시 상대방에게 표현될 때 비로소 공감을 이룰 수 있다.

158) 유명한 국내 대기업의 리더는 “5% 성장은 불가능해도 30%는 성장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5% 정도를 개선하려면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에 달성하기가 결코 쉽지 않지만 30%라는 혁신목표(Stretch Goal)를 달성하려면 접근법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존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도저히 30%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혁신다운 혁신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http://blog.naver.com/doolyking.do?Redirect=Log&logNo=60010349998>

159) 본래 피그말리온은 교사의 기대나 칭찬이 학생의 행동과 지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교육심리학적 이론이다. 이 이론은 유통업계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능력이 모자라는 직원일지라도 계속 칭찬하고 독려하면 잠재된 능력을 심분 발휘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된다는 게 유통업계의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다. 수많은 경쟁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는 유통업체는 자사의 고객에게 좀 더 향상되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으로 피그말리온 효과를 응용하고 있다. <http://blog.naver.com/gngsun/140010235525>

5) 자율성

자각을 통하여 전일성, 통합성, 평등성을 깨달은 리더가 현실에서 앎을 행동으로 옮길 때 조직이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겪고 그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조직원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리더의 자각이 조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면 그들의 의지가 조직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자율성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노장(老莊)의 정치관에서 이상적인 정치란 비록 그 공덕이 천하를 뒤덮어 모든 백성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더라도 백성들은 그와 같은 삶의 평안함이 왕이 개입되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조차 못하는 정치라고 했다. 이와 같은 리더십의 전형은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¹⁶⁰⁾라고 한 노자의 명구에서 잘 나타난다. 작은 생선은 자주, 함부로 뒤적이며 요리하면 다 부스러지는 이치와 같이 정치에 있어서도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정치가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무위(無爲)란 무위즉무불이(無爲而無不爲), 즉 함이 없으나 하지 않음이 없음을 의미한다.¹⁶¹⁾ 수운에게 있어 최상의 정치형태는 ‘무위이화(無爲而化)’였으며 이상적 위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위이화의 덕을 지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⁶²⁾ 수운의 ‘시천주(侍天主)’는 개인의 내적성찰을 위한 화두일 뿐 아니라 국가의 통치철학이다. 무위이화의 통치를 한다는 것은 무위이면서 무불위(無不爲)임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노자의 소선(小鮮)의 비유와 같은 것이다. 가장 훌륭하고 유능한 정부가 되지만 국민들 모두는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160) 『道德經』, 60장 : “治大國 若烹小鮮”

161) 『道德經』, 38장 : “上德無爲而無不爲”

162) 최민자, “수운의 후천개벽과 에코토피아(Ecotopia)”, p.12.

되는 것이다. 무위이화의 정치가 실현되면 사실상 다스리는 지도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구분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구분이 무의미해 진다면 그 자체로 현실 속에서 평등한 세계가 구현된 것이다.

이상적 위정자가 되기 위해 무위이화의 덕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생태정치와 일치한다. 기본적으로 통합적인 큰 틀은 리더가 구상하지만 그 안에서 개개인은 고도의 자율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무위이화의 정치를 편다는 것은 생태 패러다임의 사고를 기반으로 큰 틀을 짜고 그 안에서 개방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이루어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직원들의 직접참여를 유도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무위(無爲)란 아무것도 하지 않으나 하지 않음이 없음을 의미한다 하였다. 여기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위 자체가 없음’또는 방임, 태만의 뜻이 아니다. 무위의 상태는 이미 생태 패러다임에 입각한 개인의 고도의 자율성이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리더가 일방적·인위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존재의식을 자각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과 나아갈 바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리더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여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도자가 술선수범하여 생태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리더를 따르게 된다. 또한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고도의 효율성을 가져올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 무위이화의 도(道)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리더가 생태 패러다임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조직의 목적을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자발적 조율의 과정이 필요하다.¹⁶³⁾ 지도자 자신이 술선수범함으로써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치자와 피치자간의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을

163) 장석훈 옮김, 앞의 책, p.337.

것이다. “명쾌한 비전과 다함이 없는 열정, 개성의 힘과 지성을 결합한 고도의 도덕적 자질, 가슴에 와 닿는 순수함이야말로 리더십의 필수조건”¹⁶⁴⁾이다.

무위이화의 자율성을 발휘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신뢰’를 들 수 있다.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한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회, 신뢰가 없는 사회는 경쟁력이 없다.”¹⁶⁵⁾ 리더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는 관심과 배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촉진하게 된다. 또 이러한 공동체 문화는 다시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조직 내에 신뢰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의 질과 문화는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과 관계의 질을 높이고 신뢰문화를 조성하는 책임은 리더의 몫이다.

생태정치학에 입각한 리더는 개방성과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조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공동의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조직에 참여하게 되면 조직 자체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보장된다. 이것이 곧 직접정치이다. 각자가 자각적 주체로서 참여하는 직접정치는 직접시대에 필요한 정치형태로서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가시화된 직접정치의 예로써 동학의 접포제(接包制)를 들 수 있다. 접(接)은 1890년대에 전국적 조직으로 뿌리를 내렸고 1890년대 후반에 접(接)에 기초한 포(包)가 형성되어 동학의 정치사회적 참여가 활성화된다. 그러한 가운데 접포제는 사실상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1910년대 갑진개화운동 그리고 1919년 3·1운동의 사상적·조직적 기초가 되었다. 이처럼 접포제는 보국(輔國)의 주체로서의 근대적 민중의 대두를 촉발시킴으로써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의 사상적 토대 구축과 더불어 새로운 문명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164) 최민자, 앞의 책, p.143.

165) 이관응, 『신뢰경영과 서번트 리더십』 (이천: 엘테크, 2001), p.52.

수 있다.¹⁶⁶⁾ 집포제는 자율성과 평등성에 기반한 것으로 집은 인맥단위의 영성 공동체였고 또는 인맥단위의 정치적·사회적 운동체였다.¹⁶⁷⁾ 이 두 공동체는 서로 개방적·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권력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직접정치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동학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에 영성 공동체인 집과 정치·사회의 운동체였던 포가 권력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현실체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영성과 정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도 일사분란하게 체계적으로 조직의 결집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의식의 눈부신 성장과 동시대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 21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과정에 시민 참여 부분이 증가하면 미시적인 부분과 거시적인 부분을 조율하고 자율성을 주지만 조직의 응집력과 결집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생태정치학적 리더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4. 생태정치학적 리더의 역할

1) 리더-조직원의 관계

① 존재의식의 자각

사람은 일과 노동을 통해서 내적 자아를 실현해간다. 즉 일과 노동을 통해서,

166) 최민자, “수운의 후천개벽과 에코토피아(Ecotopia)” 참조.

167) 집은 대략 50가구의 모임이며 집주가 중심이 되어 민의 정치의식화를 촉진하고, 수운 최제우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소규모의 정신생활 공동체이자 동양의 전통적인 대가족을 연상시키는 인간애로 형성된 소규모 공동체였다. 또는 상위조직으로서 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기능적 전문성과 지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형성되었다. 집이 일종의 인맥적 공동체였다면 또는 지역적 체계성과 조직적 합리성이 강조되는 조직이었다.

공동체로의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간이 공동체를 자신의 정체성 확인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로의 적극적인 참여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생태 페러다임이든 생태정치에 입각한 직접정치든 그 출발은 모두 개인의 존재의식 자각을 통한 정체성 확립에서 시작된다. 자유노동으로서 인간 활동은 자기 정체성 확립과 연결되어야 한다.¹⁶⁸⁾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극에 달한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며 고립감, 외로움,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물질만능주의가 초래한 결과이다. 부(富)가 중요시 되면서 인간과 물질의 가치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인간 내면의 문제는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소외된 극빈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부유층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기인한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인 동시에 행복이란 물질적 가치척도 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극도로 발전된 정보사회의 전자문화가 과거의 산업사회에서보다 인간에게 한층 더 심각한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⁶⁹⁾ 발달된 정보사회는 인터넷과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지구촌의 동시간(同時間) 연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합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자문화의 발달로 업무의 양식과 형태 자체가 변화함으로써 그 안에서 개개의 인간은 파편화되고 고립된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뿐만 아니라 이성과 감정, 육체와 정신 까지 만물은 모두 하나이다.¹⁷⁰⁾ 모두가 하나라는 것은 곧 만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의미한

168) 김지하, 『생명학2』, p.250.

169) 리은, 테비드, 『정보화사회론』 (한국전자통신 연구, 1992) 참조.

170) 『天道教經典』, 「靈符呪文」, p.294 : "宇宙萬物 總貫一氣一心也."

다. 여기서 평등이란 개념은 권리의 평등, 기회의 평등과 같은 외적 평등이 아니라 모든 고유한 존재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내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소중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로 평등하다는 논리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확장된다.

생명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 ‘나’라는 개념이 소멸하고 더 큰 하나로서 모든 존재가 더불어 함께 진화하고 발전하며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이유이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통하여 존재의식을 깨닫고 스스로의 진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또한 고유한 자신만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결과가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식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일에 부딪히며 인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고, 리더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존재의식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독려해야 한다. 스스로의 존재의식을 깨닫고 바람직한 자아실현의 장으로 조직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동기 부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통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아실현을 이루는 경우에는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보람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

생태 패러다임에 입각한 리더는 거시적인 패러다임의 흐름과 내용을 자신의 조직에 투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그 안에서 조직원 개개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또 하려고 하는 일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자신의 존재성을 자각한 리더는 생태 패러다임을 조직에 투영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존재의식을 깨닫는 파

장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상적 자아에 대한 이미지는 장기적으로 점차 미래를 향한 공동의 전망으로 바뀌어야 한다. 존재의식을 자각하려면 자기 자신의 깨어있음과 깨어있음을 독려하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② 자기 효능감 확산

조직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훌륭한 리더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꾸준히 노력하는 구성원들 간의 조화와 관계에 있다. 존재성에 대한 자각은 깨우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안에서 깨우침이 현실이 되어 성실하고 꾸준하게 이어져 나가야 한다. 깨우침을 지속하는 것은 일을 통하여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획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인간은 자신이 열심히 한 행위가 긍정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자기 효능감을 통하여 일에서 만족을 느낀다. 이것이 곧 내적 만족감이다.

구성원의 내적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하여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점은 간과하고 있다. 물리적인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내적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가장 큰 유인은 비전의 공유를 통한 소속감이다. 리더가 조직원을 비전에 연계시킬 때 조직원들은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이를 통해 생겨난 내적 만족감이 조직원들로 하여금 모든 직무를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리더가 새로운 방향으로 조직의 길을 제시하고 업무 스타일을 바꿀 때 변화가 즉각적으로 수용되고 확산될 수는 없다.¹⁷¹⁾ 그러나 최고지도자층이 변화를

171) 에버렛 로저스(Everett Rogers)에 따르면 변화란 항상 S자 곡선을 따르는 것이다. 즉 “변화는 항상 느렸다 빨라지고 그러다 다시 느려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매우 더디게 일어나던 변화에 점차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합류하기 시작하고 동조자가 충분히 확보되면 변화의 과정에는 가속도가 붙게 된다. 케리 패터슨 외 지음, 김휘경·이경미 옮김, 『균형의 리더십』(서울: 도서출

수용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 변화의 수용여부 결정을 망설이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인식을 빠르게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 새로운 관행이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은 지속적인 리더의 관심과 조직 전반에 걸친 지원 강화를 통하여 유지될 수 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존재의식을 자각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동에 옮김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따라 존재의식을 확인하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구성원들이 느낀 자기 효능감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면 활기 있게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갖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확산되면 결국 세계가 하나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지속적인 계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솔직하고 신뢰할 만하며 자신을 뒷받침해줄 만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다.¹⁷²⁾ 즉 자기 효능감을 확산하는 것은 본인 혼자 힘으로도, 리더 일인(一人)의 힘으로 하기에 역부족이다. 리더를 중심으로 일치된 조직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개개인은 격려, 지지, 경험, 성과를 통하여 자기 효능감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확립하는 자아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 하며 이러한 정체성이 확립되었을 때 이를 생활 속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생태 패러다임 안에서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리더십은 구성원 각자가 자기 효능감을 느낌으로써 그 파장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판 예문, 2004), pp.374-377.

172) 장석훈 옮김, 앞의 책, p.272.

③ 직접참여 유도

스스로의 존재의식을 자각하고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확산시키는 일은 인간이 내면을 울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생태정치는 인간 개개인이 공동체로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자기 효능감을 극대화시키고 그 결과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윈-윈(win-win) 게임을 지향한다.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맥락이다. 새 시대의 리더는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일단 조직에 참여한 개인이 그 안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여 자기 효능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자아실현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마음이 움직여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한다. 인위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려면 그 내면에 깊은 감화가 일어나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감화의 문제는 리더 자신의 내면적·영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리더의 내면적 문제란 리더 자신이 스스로의 존재의식을 자각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려 노력하는 자여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생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모든 존재를 소중하고 평등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직접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리더의 권한이라 여겨졌던 것들의 많은 부분을 조직원에게 위임하는 일종의 임파워먼트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¹⁷³⁾ 임파워먼트는 조직의 분권화가 높을수록, 조직원과의 지속적 관계에서 반복적인 교류가

173) 특히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높은 내적동기 및 자기효능감과 동일한 결과를 가진다. 임파워먼트가 주는 수많은 잠재적 이익들이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제에 대한 개입 강화, ② 역할 책임을 수행하는 주도성 증대, ③ 장애물과 일시적인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끈기 증대, ④ 더 많은 혁신과 학습, ⑤ 업무가 궁극적으로 성공하리라는 낙관주의 증대, ⑥ 직무만족 증대, ⑦ 조직에 대한 개입 강화, ⑧ 이직 감소가 그것이다. 어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이르긴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과 관련연구들로부터 얻은 증거를 종합하면 여건이 임파워먼트에 유리할 때 잠재적 이익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상욱 옮김, 앞의 책, p.133.

있을수록, 조직의 주된 문화적 가치·학습 및 참여가 유연할수록, 조직원의 성취동기와 정서안정성이 높을수록, 최고경영진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할수록, 무엇보다 상호신뢰가 높을수록 고취되고 강화된다.

참여 리더십은 리더의 노력에 관계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게 되면 리더 혼자일 때보다 더 나은 결정이 이루어지고 결정을 실행하거나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들도 결정을 더 잘 수용하게 된다. 참여의 결과에 대한 많은 연구 증거들이 확고한 결론을 이끌어낼 만큼 강력하거나 일관되지는 않지만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분명 의미 있는 작업, 높은 자기효능감, 자결성,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리더는 조직원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수많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참여리더십과 위임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상술한 바 있는 수운의 ‘접(接)’이라는 소규모의 자율적 영성 공동체나 프리츠 슈마허(E. F. Schumacher)가 제시한 유기적이고 소규모 지향적이며 영속성을 띤 공동체들은 모두 다 자율적인 직접참여를 통한 자기효능감의 확산을 통하여 연대강화와 역할증대를 이룬 예라 할 수 있다.¹⁷⁴⁾ 예로부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하여 나라와 온 세상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근본을 수신(修身)이라 보았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닦아 각성을 이루는 수신만으로는 순수익에 이를 수 없으며, 공동체로의 헌신적인 직접참여를 통하여 비로소 자기완성에 이를 수 있다. 헌신적인 직접참여란 봉사성에 기초한 참여를 말한다. 비단 리더 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봉사하는 정신으로 능동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생태 패러다임에 입각한 새 시대는 직접시대이다. “직접시대의 사회적 삶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기초한 삶인 동시에 본질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자기정체성을 제고하며 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삶이다. 새 시대 정신은 영적 진화이며 그것은 우주 진화에의 적극적이고도

174) 최민자, “수운의 후천개벽과 에코토피아(Ecotopia)”, p.13.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¹⁷⁵⁾

2) 리더-세계와의 관계

① 공동체 의식 확립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공동체를 ‘자연의 창조(creations of nature)’로 보았다. 즉 인간은 공동체적·사회적 동물이며 공동체는 유토피아적 이상이 아니라 스스로 구현해야 할 현실세계의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조직이론가 에티엔 Wenger(Etienne Wenger)는 자기 생성적 사회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라 명명하며 구성원들 간의 연대성, 공동사업, 시간이 지나면서 구축되는 관습과 암묵적 행위법칙과 지식을 그 특징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인간조직은 두 가지 특성을 갖는데 하나는 법적이고 경제적 단위로서의 특성, 다른 하나는 인간 공동체로서의 특성이라고 하였다.¹⁷⁶⁾

일반적인 공동체의 이념형적 분석틀은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의 구분이다. 인간 본연의지에 의한 사회적 결합인 게마인샤프트는 일차적이고 감정적인 비공식적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게젤샤프트는 합리적인 의지에 의한 이차적 사회관계로서 합법적이고 규칙에 의한 업무수행 행위들을 의미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어울려 살기를 원하며 서로 희생하고 협동하려는 본연의지는 사회적 결속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게마인샤프트의 본래 속성은 자본주의적 이해타산에 물들지 않은 본연적 인간의 상부상조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조성 and 강화는 개인들의 의지의 일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현대 사회조직의 분화는 공동체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

175) 최민자, 『직접시대』, p.203.

176)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서울: 아카넷, 2001) 참조.

서적·인간적 공동체 보다 공적 업무관계가 주를 이루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공동체의 지역을 자신들의 정체성 확인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현저히 높아졌다. 또 공동체에 관한 거의 모든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비록 공동체의 구조적 형태는 변화해 왔으나 인간들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기능, 즉 생존을 위한 욕구충족과 자아를 실현하려는 개인들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¹⁷⁷⁾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관계는 생존 욕구와 사회적 자아실현의 기본적 욕구가 조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상호보완적이며 상호의존적이다.

모든 인간의 삶의 장인 공동체는 여러 개인들의 상호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공동체 지향의 상호작용은 공동체적 의식을 확립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공동체적 의식이란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품성 및 바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태의식의 확립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다.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깨달으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진리를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의식을 깨닫고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인정받는다. 따라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는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장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가 확장되고 복잡해질수록, 그러한 사회에서 개인의 무기력과 고립을 경험하면 할수록 인간들은 이상적 공동체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이론가들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직의 특성으로 주장하는 핵심은 바로 ‘공동체’이다.¹⁷⁸⁾ 산업문명이 발달하기 이전 인류의 생활 형태는

177) J. Rowan and P. Reason, "On making sense," in P. Reason & J. Rowan (eds.), *Human History: A Sourcebook of New Paradigm Research* (New York: John Wiley, 1981) 참조.

178) 1980년대 아리에 드 게우스(Arie de Geus)의 27개 장수기업 분석결과를 보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장수한 대기업의 특징은 강력한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즉 공동의 가

공동체였다. 집단생활에서 나의 성취와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이고 공동체의 운
택한 삶은 곧 나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개인은 공동체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
신하였고 그 결과 다 같이 함께 잘살 수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개인은 결
코 소외되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기적 부분임과 동시에 공동체 그 자체
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도 조직 속의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
달음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살
아가야 할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개체와 공동체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동시에 존재한다. 공동체가 개
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공동체란 결국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개인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는 공동체에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고 공동체는 다시 개인
에게 생활의 기반으로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체와 공
동체는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② 연대의식의 확산 및 공고화

공동의 연대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공동체 연구의 부수적 현상으로 다루
어졌다.¹⁷⁹⁾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공동체의 개념이 어떤 형태로 분절되더라도
공동체의 목표인 공동의 연대를 포함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동체라 일컬어질 수
없다.¹⁸⁰⁾ 공동체는 미시적으로는 몇몇 개인이 모여 이룬 조직에서부터 거시적으

치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 정체성을 기반으로, 누구라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주
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는 공동체였다. 강주현 옮김, 앞의 책,
p.147.

179) 공동의 연대는 구성원간의 동질성으로 얻어지는 안정감이나 일치감과 같은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또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규범적 차원의 가치, 신념, 규범, 목표가 포함되며 집합적 감정형성에 매개
가 되는 상징도 포함된다.

180) 강대기, 앞의 책, p.286.

로는 전 지구촌 차원까지 포괄할 수 있는 함축적인 용어로서 공동체라는 말 속에 이미 공동의 연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적 연대의식에 관심을 보인 학자들 중 대표적인 사람으로 로버트 니스벳이다. 그는 서구사회의 붕괴를 획일적인 발전관에서 찾으면서, 소외되고 파괴된 현대사회의 도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중범위 수준의 공동체 강화를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니스벳의 공동체는 심리적 일치감과 도덕적 결속력을 말하며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적 시민사회를 의미한다. 이밖에도 많은 학자들이 21세기 정보사회에 가장 큰 관심사로 인간성 회복과 공동체의 복원을 들고 있다.¹⁸¹⁾

현대와 같이 정서적인 유대와 공감을 중시하고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소규모 공동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동체 내의 통합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연대와 통합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연대는 단순히 개인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의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등 공동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동체에 두루 적용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통합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 각자가 갖고 있는 의식의 문제이다. 인간은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존재의 가치를 체험하며 자아실현을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생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뚜렷한 목적과 대가성이 아닌 봉사성에 기초한 강한 헌신은 공동체 통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핵심은 모든 존재의 합일성(合一性)에 기초하여 개인 간, 공

181) 조직이론가 에티엔 웬저(Etienne Wenger)는 자기생성적인 사회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공동체 (community of practice)’라고 칭하며, 의미를 생성하는 조직패턴보다 공통된 의미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웬저의 설명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공통된 움직임을 갖기 마련이다. 그리고 업무나 인간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을 공유함으로써 공통된 목표를 성취하게 된다. 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공통된 움직임은 관련 당사자들 간의 끈끈한 연대감으로 발전한다.” Etienne Wenger, *Communities of Practic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참조; 니스벳, 로버트 지음, 강대기 옮김, 『현대사회의 정신사적 기초』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참조. 메이너드, 허먼·수전 머틴스 지음, 한영환 옮김, 『제4의 물결』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참조.

동체 간의 연대의식을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고화하는 문제에 있다. 연대의식의 공고화는 공동체 내부의 규율과 문화에 따라 새로운 구성원들을 교육시키고 사회화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내적 자아로 결속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리더를 중심으로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에코토피아(ecotopia) 구현

“에코토피아(ecotopia)는 ‘주거지,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 ‘oikos’에서 유래한 ‘ecology’와 ‘없음’을 뜻하는 그리스어 ‘ou’와 ‘장소’를 뜻하는 그리스어 ‘topos’가 합쳐진 데서 유래한 ‘utopia’의 합성어로 생태적 이상향을 의미한다. 동학적 이상향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동시에 생태적이기 때문에 에코토피아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¹⁸²⁾ 평등이 구현된 이상사회를 수운은 ‘동귀일체(同歸一體)’라고 하였으며, 해월은 ‘물오동포(物吾同胞)’, ‘인오동포(人吾同胞)’라 하였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 모든 만물이 평등하게 하나로 연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생태 패러다임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고유성을 간직한 다양한 하나로서 함께 진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동학사상의 후천개벽은 생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후천개벽의 본질은 하늘과 사람과 만물에 대한 차별 없는 공경과 사랑으로서 에코토피아적 지향성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에코토피아는 현대물리학의 새로운 실재관, 동양의 전일적실재관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¹⁸³⁾

에코토피아는 기본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세계화를 재설계하는데 필요한 핵심가치의 필수요건이

182) 최민자, “수운의 후천개벽과 에코토피아(Ecotopia)” 참조.

183) 위의 글, p.10.

다.¹⁸⁴⁾ 인간 공동체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나 경제활동 등이 생명을 지속시키는 자연의 고유한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생명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생명의 패턴을 진화시킨다. 따라서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체되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의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여나아가는 과정이다. 지속가능한 인간 공동체는 모든 생명계와 상호작용하면서 그 모든 생명계가 고유한 원칙에 따라 살아가며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세계이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식¹⁸⁵⁾을 자각하고 공동체로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의 효능감을 확산할 뿐 아니라 연대의식의 확산과 공고화를 바탕으로 에코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변화해야 한다. 리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¹⁸⁶⁾

에코토피아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가치와 문화들로 세상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에코토피아를 구현하는데 있어 기존의 조직과 공동체가 갖고 있던 문화들이 모두 버려야하고 도외시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들 중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과 버려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생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은 무조건 이전의 문화를 구식의 낡은 것, 지양해야 할 과거의 잔재로 폄하함이 아니

184)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은 1980년대 초 레스터 브라운(Lester Brown)이 처음 도입했다. 월드워치 인스티튜트의 창설자인 브라운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세대에 약속된 기회를 조금도 빼앗지 않으면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세계 환경 및 개발 위원회의 보고서(Brundtland Report)가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개념을 제안하면서 똑같은 정의를 사용했다. ‘인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할 능력을 갖고 있다. 즉 미래세대가 욕구를 만족시킬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현재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185) 『東經大全』, 「後八節」: “我爲我而非也.” 수운은 내재적 본성인 신성의 자각적 주체가 된다는 것이 “내가 나 된 것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존재의 자기 근원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86) 최민자, 『직접시대』, p.96.

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유한 자산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용의 시각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은 공정하고 올바른 시각으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 중 단절해야 할 것과 수정·보완해야 할 것, 계승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에코토피아를 구현하는데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생태 패러다임은 이성만을 강조하였던 기존의 세계관을 대치할 수 있는 포괄적·통합적 패러다임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라는 의미는 인간과 자연뿐 아니라 천시(天時)와 인사(人事) 일체를 상호 관통하고 융합하는 궁극적 의미의 통합이다. 생태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데카르트적 구분을 극복하며 정신과 물질을 하나로 통합하여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생태 패러다임 안에서 현상과 실제, 주관과 객관 등 기존의 모든 이분법적 갈등구조는 하나로 통합된다.

생태 패러다임은 정신·물질 이원론에 기초한 기계론적 세계관이 생명과 존재의식의 자각을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통합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한 것이다. 생태 패러다임은 혼원일기로 이루어진 우주 만물이 하나의 전체임과 동시에 각 개체의 고유성이 살아 있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핵심가치는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다. 주체와 객체의 불평등한 이원화

구조가 현재 인식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이라면 생태 패러다임은 만물의 존귀함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나와 너’가 하나로 존재하는 생명 중심의 통합적 패러다임으로서 인식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리더십의 문제도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기계론적 세계관 하에서 리더십 연구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이원화하는 구조 속에서 훌륭한 리더의 조건에 초점을 맞추며 기술적·도구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인간의 심층적 내면의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고 피상적 수준의 분석에 머무르거나 기술을 소개하는데 치중하였다. 핵심은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직시하고 깨닫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정신의 문제, 인식의 문제이며 인간 내면의 문제이다.

생태정치학적 리더란 생태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조직원으로 하여금 존재성을 자각하고 생명공동체로의 연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이끄는 사람이다. 따라서 생태정치학적 리더는 인간 개개인이 스스로의 존재성을 깨닫고 자기 효능감을 확산시키며 영적진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데 한 발 앞선 안내자이자 동반자이다. 생태정치학적 리더는 주관과 객관, 전체성과 객체성, 이성과 신성 등의 이원성을 통합하는 중심에서 있다. 핵심은 리더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자각으로서 스스로의 존재성을 깨달은 리더만이 조직원을 생명공동체로의 연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의 다섯 가지 특징으로 전일성, 통합성, 평등성, 자각성, 자율성을 제시하였다. 전일성, 통합성, 평등성이 생태정치학적 리더의 인식론적 측면이라면 자각성, 자율성은 보다 실천적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생태정치학적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태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인식과 그에 입각한 상호 신뢰와 믿음이다. 모든 생명의 존귀함과 소중함은 혼원일기라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되며 혼원일기가 곧 전일성과 통합성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 자연을 포함한 우주만물은 각자의 내면에 고유한 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질적·근원적으로 평등하다는 평등성이 도출된다. 생태 패러다임에 입각한 리더는 존재의 본질적 평등성을 깨달아야 하며 자신을 비롯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동일하게 평등함을 안다면 진정한 의미의 안내자요 동반자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리더의 기본 의식이 공동체 안에서 발현되려면 공동체 구성원의 자각이 일어나야 한다. 리더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존재성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환경 조성은 직원들에게 최고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전일성, 통합성, 평등성에 대한 인식인 자각성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이룬다면 자기 효능감의 확산과 더불어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리더십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론과 현실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본고는 생태정치학적 리더의 역할에 대하여 리더와 조직원의 관계, 리더와 세계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리더와 조직원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은 조직원으로 하여금 존재의식을 자각하고 자기 효능감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 리더의 역할은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대의식의 확산 및 공고화를 통하여 에코토피아를 구현하는데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리더의 역할이 실행되려면 리더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식을 자각하고 공동체로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의 효능감을 확산할 뿐 아니라 연대의식의 확산과 공고화를 바탕으로 에코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변화해야 한다.

생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 실천적 차원과의 연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

다. 모두 현실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적인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정치학은 생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서 이론과 현실을 연계하고 그것이 실효성을 갖게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생태정치학적 측면에서 리더를 조명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에코토피아에서 상생의 삶을 구현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리더십 연구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타고난 리더가 존재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끊임없는 학습과정을 통해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⁷⁾ 또한 리더의 기술만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을 통해 인간의 정서적·영적 능력도 키워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리더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생태 패러다임에 입각한 리더십론을 파급·보급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이론을 현실의 장에서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은 생태 패러다임의 본래적 의미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상생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현실의 장에서 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며 그 역할의 중심에 리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 시대 리더의 정치실천적 과제는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기 효능감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조성함으로써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띤 공동체 즉, 에코토피아를 구현하는 것이다.

187) 리더는 정치의 교육적 기능을 중시해야 한다. D. 맥그리거는 “리더십이란 특정한 사람들만 가지는 특성이 아니라 리더와 환경과의 관계에 따라 생성된다”라고 했다. 러스킨도 리더의 자질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지적인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했다. 20세기 최고의 CEO인 잭 웰치도 “인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라고 주장한다. 이준형, 앞의 책, p.93.

참 고 문 헌

『道德經』

『東經大全』

『龍潭遺詞』

『天道教經典』

『皇極經世書』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2001

강정인,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2004

_____, “덕치와 법치; 양자 겸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Vol.6, 한국정치사상학회, 2002

_____, 이상익, “동서양 사상에 있어서 정치적 정당성의 비교”, 『정치사상연구』 Vol.10, No.1, 한국정치사상학회, 2004

구갑우, “국제정치경제(학)와 비판이론”,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2, 한국정치학회, 2004

구승희, 『에코필로소피-생태·환경의 위기와 철학의 책임』, 서울: 새길, 1995

김번웅, “생태정치학적 정치이론과 공공정책”, 『한국정치학회보』 Vol.14, 한국정치학회, 1980

김석희, “리더십 이론의 통합적 접근: 상황부응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産業經營研究』, Vol.1, No.7. 1999

김순규, 『정치학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04

- 김지하, 『생명학1』, 서울: 도서출판 화남, 2003
- _____, 『생명학2』, 서울: 도서출판 화남, 2003
- 니스벳, 로버트 지음, 강대기 옮김, 『현대사회의 정신사적 기초』,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 다니엘 골먼·리처드 보이애치스·애니 맥키 지음, 장석훈 옮김, 『감성의 리더십』, 서울: 청림출판, 2004
- 레이코프, G., 존슨, M. 지음, 임지룡 외 옮김, 『몸의 철학』, 서울: 박이정, 2002
- 리온, 데이브, 『정보화사회론』, 한국전자통신 연구, 1992
- 메이너드, 허먼·수전 머틴스 지음, 한영환 옮김, 『제4의 물결』,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 문태훈, “외국의 녹색 정부 사례와 시사점”, 『환경과 생명』 Vol.32, 환경과 생명사, 2002
- 박병련, “다산 정약용의 정치리더십론 연구”, 『유교리더십과 한국정치』, 서울: 백산서당, 2002
- 백기복, 『이슈리더십』, 서울: 창민사, 2000
- 스튜어트 웰스, 김기홍 옮김, 『세상을 지배하는 리더의 9가지 유형』, 서울: 이지북, 2003
- 신복룡, 『동학사상과 갑오농민혁명』, 서울: 평민사, 1985
- 신응섭 외,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0
- 신응섭 외, 『리더십』, 서울: 학지사, 1996
- 안외순, “맹자의 왕도정치론에 나타난 정치리더십론”, 『유교리더십과 한국정치』, 서울: 백산서당, 2002
- 알버트 슈바이처 지음, 김석목 옮김, 『문화와 윤리』, 서울: 경지사, 1965

- 오문환, 『동학의 정치철학: 도덕, 생명, 권력』,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3
- 월드위치연구소 펴냄, 생태사회연구소 옮김, 『2004 지구환경보고서』, 서울: 도서출판 도요새, 2004
- 윤석산, 『동학사상과 한국문학』,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 이강욱·송경용·노언필, 『21C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무역경영사, 2001
- 이관응, 『신뢰경영과 서번트 리더십』, 이천: 엘테크, 2001
- 이돈화, 『신인철학』, 서울: 천도교중앙총부, 1968
- 이상익·강정인, “동서양 사상에 있어서 정치적 정당성의 비교”, 『정치사상연구』 Vol.10., No.1., 한국정치사상학회, 2004
- 이수중, “생태적 패러다임에 따른 현행 환경 교과서 평가”, 『환경과 생명』 Vol.31, 환경과 생명사, 2002
- 이준형, 『리더십 먼저 민주주의 나중에』, 서울: 인간사랑, 2004
- 이진우, “말없는 자연은 윤리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사회비평』 Vol.15, 서울: 나남출판, 1980
- 정규호, “녹색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환경과 생명』 Vol.31, 환경과 생명사, 2002
- 정대연, 『환경사회학』, 서울: 아카넷, 2002
- 정수복, 『녹색대안을 찾는 생태학적 상상력』,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 조명래, 『녹색 사회의 탐색』, 서울: 한울, 2001
- _____, “녹색 정부의 개념, 유형, 차원”, 『환경과 생명』 Vol.32, 환경과 생명사, 2002
- 진덕규, 『현대정치학』, 서울: 학문과 사상사, 2003

- 제임스 C. 헌터 지음, 김광수 옮김, 『서번트 리더십』, 서울: 시대의 창, 2004
- 최민자, 『직접시대』, 서울: 도서출판 범한, 2001
- _____, “수운과 원효의 존재론적 통일사상, 『동학학보』 Vo.6, 동학학회, 2003
- _____, “수운의 후천개벽과 에코토피아(Ecotopia)”, 『동학학보』 Vol.7, 동학학회, 2004
- _____, “동학의 정치철학적 원형과 리더십론“, 『동학학보』 Vol.9, 동학학회, 2005
- 칼 마르크스 지음, 김수행 옮김,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1-상』, 서울: 비룡출판사, 2003
- 케리 페터슨 · 조셉 그레니 · 론 맥밀란 · 엘 스위츨러 지음, 김휘경 · 이경미 옮김, 『균형의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 예문, 2004
- 프리츠프 카프라 지음, 강주현 옮김, 『히든 커넥션』, 서울: 휘슬러, 2003
- 한국 공간 환경학회 생태환경분과 한국도시연구소 환경연구부, “세계화의 그늘, 빈곤과 환경파괴”, 『환경과 생명』 Vol.32, 2002
- 한면희, 『환경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 황태연,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서울: 나남출판, 1994
- Engels F. 지음, 박준식 외 옮김,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서울: 세계, 1988
- G. Friedman 지음, 송휘철 옮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상적 연원』, 서울: 탐구당, 1987
- Gary Yukl 지음, 이상욱 옮김, 『현대조직의 리더십 이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 M. Horkheimer & Th. W. Adorno 지음, 김유동 외 옮김, 『계몽의 변증법』, 서울: 문예출판사, 1996
- Michael J.Marquardt, Nancy O.Berger 지음, 양동훈 옮김, 『21세기의 글로벌

- 리더십』, 서울: 신론사, 2003
- Peter G. Northouse 지음, 김남현 · 김정원 옮김, 『리더십: 이론 · 응용 · 비판 ·
 측정 · 사례』, 서울: 경문사, 2002
- UNEP, 『Our Planet』 Vol.8, UNEP 한국위원회, 2003
- Adair John, *The Skills of Leadership*, New York: Nichols Publishing
 Company, 1984
- Bass Bernard M., *Stogdill's Handbook of Leadership: A Survey of Theory
 and Research*, recised and expanded ed., New York: The Free
 Press, 1981
- , *Bass & Stogdill's Handbook of Leadership: Theory,
 Research & Managerial Implic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90
- Bohm David, *Wholeness and the Implicate Order*, London: RKP, 1980
- Bookchin, Murray, *Toward an Ecological Society*, Montreal: Black Rose
 Books, 1980
- , *The Philosophy of Social Ecology*, Montreal: Black
 Rose Books, 1991.
- Capra, Fritjof, *The Tao of Physics*, Boston: Shabhala, 2000
- , *The Turning Point*, New York: Simon & Schuster, 1982
- , *Uncommon Wisdom*, New York: Simon & Schuster, 1998
- and Charlene Spretnak, *Green Politics*, Santa Fe, New
 Mexico: Bear & Company, 1986

- _____ and Davic Steindl-Rast, *Belonging to the Universe*, San Francisco: Harper, 1991
- Drath, W. H. & Palus, C. J., *Making Common Sense: Leadership as Meaning-making in a Community of Practice*, Greensboro, NC: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 1994
- Etienne, Wenger, *Communities of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G. Lippitt, "What do we know about Leadership",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Journal*, Dec. 1955
- Giddens, Anthony, *The Third Way*, Cambridge: Polity Press, 1998
- Gorz, Andre, *Ecology as Politics*, Boston, MA: South End Press, 1980
- Held David,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Horkheimer to Habermas*,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K. Greenleaf., *On Becoming a Servant Leader*, San Francisco: Jossey-Bass, 1996
- Katz Daniel and Kahn Robert I.,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 New York: Wiley, 1966
- Likert Rensis, *The Human Organization: Its Management and Valu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7
- Nisbet, Robert A., *Social Change and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Ophuls, William, *Ecology and the Politics of Scarcity*,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1992.
- Paige Glenn D., *The Scientific Study of Political Leadership*, New York:

- The Free Press, 1977
- Rost Joseph C., *Leadership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Praeger, 1991
- Rowan J. and Reason P., "On making sense", in P. Reason & J. Rowan (eds.), *Human History: A Sourcebook of New Paradigm Research*, New York: John Wiley, 1981
- Sachs, Wolfgang, *Global Ecology: A New Arena of Political Conflict*, London and New Jersey: Zed Books Ltd., 1993
- Sorokin, Pitirim A., *The Crisis of Our Age*, New York: E. P. Dutton & Co., INC., 1941
- Yong-Jick Kim, "J.-J. Rousseau's Concept of Virtue", 1987, unpublished monograph

동아일보, 2001년 12월 16일자

조선일보 2004년 08월 26일자

조선일보 2005년 2월 22일자

네이버 <http://100.naver.com>

다음 <http://feature.media.daum.net/culture>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